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3455.83	↑ 코스닥	845.34
	(+31.23)		(+3.35)
↑ 금리 (연이자율)	2.596	↑ 환율 (원/달러)	1403.30
	(+0.014)		(+0.40)

中 HBM 굴기에 K-반도체 '위기'

화웨이, 자체 HBM 탑재 예정
中, HBM 자급률 확대 목표
삼성·SK, 점유율 하락 우려



尹 대통령 '국군의 날 열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 폭메모리(HBM) 시장 진출을 서두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삼분해 온 글로벌 시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기업이 자국산 HBM을 사용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대표 테크기업 화웨이가 내년에 인공지능(AI)칩 '어센드 910C' 생산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60만대로 늘리기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센드 전 제품군의 다 이(칩 회로가 들어가는 기본 실리콘 부품) 생산량도 올해 100만개 대비 대폭 늘려 최대 160만개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화웨이는 AI칩에 자체 개발 HBM제품을 탑재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AI반도체 '어센드950PR'에 자체 개발 HBM 제품 'HiBL 1.0'을 탑재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HiBL 1.0이 128GB(기가바이트) 용량에 최대 1.6TB·s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3E 12단의 대역폭이 1.2TB·s인 점을 감안하

면 이를 웃도는 수치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또한 HBM을 포함한 D램 제조 분야로 사업 확장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 미국이 대중국 HBM 수출 통제를 확대한 이후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서둘러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S

K하이닉스62%, 마이크론21%, 삼성전자 17%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내 HBM 수요를 겨냥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 HBM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 구매량이 줄어들 수 있어 국내 업체들의 공급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화웨이와 바이두 등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예상해 삼성전자의 HBM을 선제적으로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쌓인 국내 기업의 HBM 물량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삼성전자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부 지원과 '원팀'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기업들이 내놓을 HBM 제품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metro®

9월 수출 42개월來 최대 對美수출은 2개월째 감소

지난달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관세 부과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낸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업일수에 따라 일 평균 수출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9월 일평균은 8월까지 평균(25억5000만달러)보다 2억 달러 높았고, 1~9월 기준에도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수출은 월 단위로 관리하는 만큼 조업일수 효과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5대 주력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가격 강세에 힘입어 166억1000만달러(22.0% ↑)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자 '빛 탕감'

정부 새도약기금 공식 출범
사행성·외국인 채권 등 제외
7년 이하 조정 방안도 마련

정부의 장기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개인연체자 및 개인사업자로, 연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채무 감면을 제공한다. 차주간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장기 채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소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사행성·유형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 매입은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추심은 채권 매입 즉시 중단된다. 채무조정 및 소각 여부는 차주

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되며,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중증장애인, 생활조정부당·생계지원금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단, 장기 채무 보유에도 중위소득이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추심이 재개

된다. 이미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장기 연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7년 이상 연체가 발생했으나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진행중인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공급된다. 이는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가야... 전작권 회복해 방위태세 주도할 것"
▲김민석 총리, '천원의 아침밥' 청주 식당 찾아 격려 /사진 뉴스스

▲▲ "특검 검사 '원대복귀' 요청은 형사처벌 대상... 집단행동 금지 위반"
▲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 강화... 복지장관, 의료체계 현장 점검

▲장동혁 "김현지 국회 안 세운다면 의혹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것"
▲송인석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은 위법... 국민의힘은 동행 안 할 것"

5년 내 자율항해선박 개발 목표... 규제완화·세제지원 나서

선박·드론 AI 선도 프로젝트

부총리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산업 ‘게임체인저’이자 필수전략”

드론분야 완전 자율비행기술 목표
6년 내 AI드론 5대 완성 프로젝트

배들도 자율주행차처럼 선장·선원의 기기 조작 없이 운항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일 정부는 향후 5년 내 선원 탑승이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항해 기술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다. 개발을 맡은 민간에는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선박·드론 분야)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AI 자율항해선박’과 ‘AI 드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 센터를 방문, 자율항해선박 기술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한편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

의 IT, 반도체, 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동원 가능한 역량을 결집해 조선·드론산업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박분야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도 항해하는 수준의 기

술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올해 4분기에 조선·해운사와 AI 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자율항해선박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 연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 연안선박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자율항해선박 학습·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셋을 확보·보급할 계획이다.

신기술 실증을 위한 선제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연내에 자율항해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테스트베드(시험무대)를 확보한다. 자율항해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특히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드론 분야 역시 완전 자율비행 기술 개발이 목표로, 2031년까지 AI 기반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드론 활용도가 높은 항공,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가 중점 개발 대상이다. 이들 분야에서 임무수행 AI 드론의 개발·실증·상용화

지원을 전주기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 완성체 개발과 함께 핵심 부품(자동 자세제어 모터 등), AI 범용 핵심기술(디지털 트윈 맵핑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국내 제조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 전용 제조 기반을 확충하고 드론 전용 비행 실증 구역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산업계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민간 주도 협력체인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도 구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또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유비파이, 니어스랩, 메이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과감한 규제개선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7개 시·도 참여 ‘자율주행 시대’ 실증 논의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의견모아
택시·버스 등과 상생방안도 논의

정부가 제도화를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주에서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광역협의체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진행했던 소규모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버스가 시범운행 되고 있다. /뉴시스

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임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실증도시 추진방안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

화 및 육성방안도 논의했다.

기존의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자해의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의 운영부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 원격관제 등 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지원, 차량의 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차량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자율주행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4.5일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가운데)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공연

소공연,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정부, 주휴수당 폐지 먼저해야
과도·불합리 인건비 구조에
주 4.5일제 도입은 ‘사형선고’”

소상공인연계가 주 4.5일제를 반대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면서다.

특히 정부가 주 4.5일제를 강행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주휴수당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계의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예고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지난 1999년 9월(98헌마310)

과 2019년 4월(2016헌마466) 결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각각 판단한 바 있다.

소공연은 기자회견문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업종에 강행된다면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현재보다도 1.5배를 더 지급해야하며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더 줘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게다가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돼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킬래야 시킬 수 없는 형편이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덕현 서울소상공인연합회장은 “4.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반드시 전제돼야한다. 그렇지 않고선 4.5일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혁신’이 아니라 ‘폐업 통보’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민 대표는 “PC방 업계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수년째 시간당 1000원대에서 동결돼 있는데 임대료와 최저임금은 50% 이상 올랐다. 인터넷 전용선 비용만 월 100만원이 넘고, 고가의 PC설비 투자까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모든 개인연체자, 신복위 ‘채무조정’ 가능

>> 1면 ‘7년 이상, 5000만원...’서 계속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의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주관하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의 채무는 새도약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며, 5년 이하의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한 20~70%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다.

이역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빛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



이역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韓美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유 '환율관찰 대상국' 제외 가능성

재무당국 환율정책 합의

양국 재무당국 소통·신뢰 재확인
'통화 가치 수호' 기본원칙 확립
원화절상 압박 질문에 "해석 영역"

한국은 향후 원·달러 환율 관련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한 경우 매월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한미 양국 재무당국은 1일(한국시간)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환율정책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이 합의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의를 100% 담보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보다 낮은 수위가 낮은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다.

양국은 지난 4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약'에서 환율이 비관세 부문 의제에 오름에 따라 상호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를 이어왔다.

우선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대외에 공개해 온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월별로 미 재무부와 공유(대외 비공개)해야 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및 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환

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라는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스위스 등 각 나라와 유사한 틀을 갖고 합의했지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거기에서 변형된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며 "안정"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달러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같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봐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정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는 11월 발표될 환율보고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조정되게 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걸 11월 환율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화절상 압박이 있었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다. 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절상을 하라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하며, 환율 방향성과 무관하게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中, 韓 스마트폰 시장 '정조준' '삼성·애플' 양강체제 흔들리나

국내 법인 설립 등 공세 강화
서비스 품질·브랜드 신뢰도 관건



샤오미코리아가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샤오미 스토어 2호점 개장과 신제품 '샤오미 15T 프로'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중국 전자제품 회사 샤오미가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워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삼성과 애플이 장악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장을 던져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가격이 삼성의 프리미엄 제품군과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오프라인 서비스센터까지 열며 공세를 강화하는 만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샤오미 15T 프로'를 공개했다. 지난 1월에 국내에 법인 설립하며 한국 시장 공세를 강화한 데 이어 샤오미 스토어 2·3호점을 연달아 선보였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0%대에 머무는 상황을 깨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샤오미가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삼성·애플·샤오미 3강 구도로 굳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서비스, AS, 보안 플랫폼과 프리미엄 중심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각에

서는 샤오미의 국내 공세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 경쟁까지 촉발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서비스 부문에서 강점을 유지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휴대전화 AS부문에서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2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 서비스를 도입해 주목받았다. 삼성만의 엔지니어 기술력과 전문 장비를 통해 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단품 수리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만큼 샤오미가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가격적인 강점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소비자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29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반색'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

카드업계, 실적회복 기대감 고조
일각선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도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으로 카드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용사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작된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으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기존 연체 이력이 삭제되며, 신용점수 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다. 이들이 모두 연체액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신용사면을 받는 국민은 총 370만3000명이다.

역대 규모의 신용회복으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카드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현재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승인 건수 및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 '2025년 8월 카드 실적'에 따



정부의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이 카드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뉴스

르면, 지난 8월 기준 신용카드 승인건수는 15억5000만건으로, 전달(15억7000만건)과 비교했을 때, 2000만건 감소했다. 전년 동월(15억4000만건)과 비교하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승인금액도 줄었다. 8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81조3000억원으로, 7월 신용카드 승인금액(85조4000억원)에 비해 4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78조원)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연체로 인해 신용거래 접근이 막혀 있던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고객 확보 및 휴면 고객의 시장 유입이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단, 신용사면이 업계 실적 회복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

다. 사면으로 신용카드 및 카드론 이용 고객이 증가한다고 해도, 사면 대상인 취약차주들의 기초 금융 체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연체율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카드론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며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회복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갚지 못한다면 연체율이 상승해 자산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5811억원으로 전달(1조5282억원)보다 529억원 증가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다시 받아 갈아타는 것을 뜻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온라인쇼핑, 티메프 사태 이후 첫 증가세

자동차·문화·통신 등 큰 폭 증가

온라인쇼핑 시장이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e쿠폰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 이후 처음 증가로 돌아섰다.

1일 국가데이터센터(舊 통계청)가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4802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6.6% 늘었다.

온라인쇼핑은 앞서 지난 7월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 8월 들어 e쿠폰서비스가 1년 전보다 8.6% 늘어나며 1년여 만에 처음 증가 전환했다. e쿠폰서비스는 티메프 사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넘게 감소한 바 있다.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5.1%), 문화 및 레저서비스(28.0%), 통신기기(24.8%) 등에서 크게 늘었다. 화장품(10.9%), 패션용품 및 악세서리(9.9%), 음식서비스(9.0%), e쿠폰서비스(8.6%)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가방(-7.0%), 신발(-3.0%), 가구(-0.2%), 기타서비스(-41.6%) 등에서는 거래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총거래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7월 7.8%, 8월 6.6%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작년 티메프 사태의 기저 효과가 소거되면서 전체적으로 동월비도 조금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도체 호조... 아세안·EU 역대 최고 실적

>> 1면 '9월 수출 42개월...'서 계속

바이오헬스는 35.8% 늘어난 16억 8000만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EU(+54%), CIS(+78%) 등으로 급격히 다변화하며 64억달러(16.8% ↑)로 9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16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5% 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아세안(110억6000만달러, +17.8%), EU(71억6000만달러, +19.3%)는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대만 수출도 반도체 호조 덕분에 52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고율 관세 품목 부진으로 102억 70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1.4% 감소,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추석 연휴 7일 휴장... 자산운용사들 “현금보단 분산 투자”

연휴 기간 자산관리 전략

FOMC 발표에도 ‘장기전략 유지’
머니마켓·채권형 ETF 활용 추천
금·반도체·관광 등 성장테마 분산

사상 최장인 추석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은 벌써 해외 휴가지와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연휴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기 때문. 그대로 들고 가도 될지, 미리 팔아치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자산운용사 ETF 본부장들은 “포트폴리오를 크게 흔들 필요는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주요 이벤트가 연휴 중 잇따라 예정돼 있지만, 현금을 과도하게 늘리기보다는 장기 전략을 유지하고 일부 유동성만 단기 안전자산으로 옮겨두라는 조언이다.

◆전문가 “자산, 분산 하라”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국내 증시는 이 기간 문을 닫지만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7일에는 미국 무역지표가, 8일에는 연방공개



ChatGPT로 생성한 ‘추석 휴장 기간이 오기 전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투자자들’

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며, ISM 제조업지수와 신규주문 등 경기 선행 지표도 발표된다. 특히 금리 인하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견해차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 연휴 후 국내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장기 전략의 수정에는 신중하다.

김승철NH아문디자산운용ETF본부장은 “ETF 자체가 분산투자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원자력을 담았다면 K뷰티처럼 성격이 다른 테마를 함께 구성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이나 고배당 ETF를 반대 포지션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본부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배당 확대, 세제 변화로 국

내 주식시장 리레이팅 기대가 높아졌다”며 “미국에 치우쳤던 포트폴리오를 한국과 여타국가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장 대응 전략은 ‘안정적 운용’에 방점이 찍혔다.

노아름 KB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 미국 FOMC 의사록과 일부 지표가 나오지만 시장 방향을 뒤흔들 이벤트는 없다”며 장기 테마 ETF는 유지하되 일부 자산을 채권이나 현금성 ETF로 조정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단기성 자금은 ACE 머니마켓액티브 ETF를 활용해 연휴 기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연금계좌 등 초장기 투자금은 굳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급격한 포지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동성이 부담된다면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여유자금만 PLUS 머니마켓 ETF 같은 파킹형 상품으로 옮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 노려라

전문가들은 업종별 ‘기회’도 제시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

와 상법 개정 모멘텀으로 금융·반도체·지주회사 ‘금반지’가 유망하다”며 금융과 지주의 주주환원 매력, AI 반도체 성장세를 언급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현금을 쌓아두기보다는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한 고품질 ETF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AI 전력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Capex 확대와 실적 서프라이즈를 꼽았다.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긴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생길 수 있지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며 “연휴 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이 관광·소비 업종을 살리고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의 핵심 조인은 ‘긴 연휴에도 흔들리지 말 것’이다. 글로벌 이벤트를 주시하면서 단기 유동성만 점검하고, 기존 ETF 중심의 장기 테마와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라는 게 다수 운용사의 결론이다. 연휴 직후 3분기 실적 시즌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인 자산배분 방향을 바꿀 만한 대형 변수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피지컬AI협회 “온디바이스 AI’로 글로벌 강국 도약 목표”

AI 대전환 선도 위한 발대식 열어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 발표 韓, 범용 AI 모델 개발 비전 제시

대한민국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AI 강국으로 거듭나게끔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피지컬AI협회가 1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피5000 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을 설명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로봇, 사물인터넷(IoT) 기기, 차량 등 물리적 실체에 탑재돼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피지컬 AI는 기기자체에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각·언어·행동을 통합한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에 기반한다.

유태준 초대 피지컬AI협회장 겸 마음 AI대표는 인사말에서 “언어를 넘어서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비전·랭귀지·액션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 인류의 노동 형태가 바뀌는 구조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챗GPT의 LLM(거대언어 모델)은 지식과 언어영역에 한정되나, 피지컬AI는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도 피지컬AI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피지컬AI를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피지컬AI협회는 그

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립됐다”며 “한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월드 모델, 범용 피지컬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환경을 이해해서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협회는 ▲산업 도메인별로 환경 구축 및 데이터 축적 전략 수립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아우르는 통합 피지컬AI센터 구축 전략 제시 ▲피지컬 AI 표준 제정 및 시험 인증 기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AI 대전환 분야 15개, 초혁신경제 15개 분야 등 총 30개 분야에서 새 성장전략을 갖고 있다”며 “모든 30대 분야가 AI 대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풍

부한 자금 아래 성장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조성해서 투자하게 될 텐데 AI·반도체 분야에 60조원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피지컬AI 가치사슬과 국내기업의 위상,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이태희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로봇 테마주가 50개 정도다. 해당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관철하는데, 영입이익이 문제다”며 “돈을 못 벌고 있다. 대부분 적자”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PER(주가수익비율)는 괜찮다. 최근 시장에서 미래 수요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상 수요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모태 펀드 등을 만들어서 이

들 사업자들이 수요를 일으켜서 시장 수요에 의해 RFM(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가치사슬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퓨리오사AI의 김한준 공동창업자 겸 최고 기술책임자(CTO)는 “퓨리오사AI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주어진 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전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AI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나에 있다”며 “컴퓨팅 비용을 줄이고 더 쉽게 제품을 들 수 있고 강력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이런 미션을 갖고 전력을 다 해서 일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산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

기후부 공식 출범... 김성환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첫걸음”

에너지·기후 정책 통합 829명 가동
전력·산업·수송 전 분야 녹색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탄소중립 산업 육성

에너지와 기후정책 기능이 합쳐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세종에서 출범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부처 인원은 총 829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제1 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전국이 배치된다. 제2 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설치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존 ▲기후

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국제협력관 외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새로 추가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출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규제와 진흥 기능이 통합된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김 장관은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등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탈탄소 전환 로드맵 제시 ▲시장 매커니즘 반영 탈탄소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기후안전망 구축 ▲국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 김성환 장관이 출범사를 하고 있다.

/뉴스

가스감축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후·에너지 관련 굵직한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맞춤 금융**
- 경영 지원**
-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B-1·ESTA로 장비설치 가능... 韓·美 비자문제 급한 불 꺼

외교부, 비자 워킹그룹 협의

양국, 韓기업 안정적 대미투자 위해
원활한 인적교류 제도 인식 공유

美 '유사사태 재발금지' 입장 확인
미국의 근본적 비자제도 바뀌어야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 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 1차 협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

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韓,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李 대통령, 77주년 국군의날 행사 “한미연합 방위태세 주도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임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



지만,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은 막

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평화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뛰어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군

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은) 다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것으로, (회복은)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라고 설명했다. 회복이라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 75만명 업무자료 소실

국정자원 화재 'G드라이브' 복구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업무자료를 모아놓은 공용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완전히 소실되면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 명의 공무원이 각자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5층 7-1 전산실에 있던 G드라이브 시스템이 소실되면서 858테라바이트(TB) 분량의 데이터와 별도 보관하던 백업 데이터도 모두 소실돼 공무원들의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7-1 전산실에 있던 G드라이브가 불에 타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 등은 더 확인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G-드라이브는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개인업무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작업하며, 이때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 상 외부로 공유할 수 없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7년 공무원 전용 G드라이브를 구축해 외부에서도 업무용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 G드라이브가 이번 화재로 전소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자료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정보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준 기자 ch9720@

정무위, 최태원·김범석 등 기업인들 국감 증인 채택

민주당, 증인 출석 최소화 당부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선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최소화해달란 입장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광의장, 김병

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국정감사 때 최태원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유로 국회로 부르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김범석 쿠광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당 차원 청문회에서 예고한 바 있는데, 그대로 실행했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의혹으로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前 환경노동위원회)도 다수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불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따져 묻고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정무위에 이어 환노위의 부름을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감시하지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인데, 이와 달리 기업인 감사에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자원 화재, 매뉴얼 없는 부주의가 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자원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화재로 인해 정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을 방문해 기관의 부주의와 준비 부족을 화재의 원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대표(사진)는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국자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행안위원들이 화재현장을 다녀갔지만, 오늘은 직접 봤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있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자원은 지난 9월26일 저녁에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우편, 정부24 등 행정·민원 서비스의 중단 및 불편이



초래된 바 있다.

장 대표는 "가만히 있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따라서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지켰는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작업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와서 보니 더 답답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을 지켰는지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결국 부주의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이 결국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위해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이스온

보험업, AI 전환 속도 고객경험 혁신 본격화

보험사, AI 전환 성과 검증 집중
한화생명, AI 설계로 맞춤 서비스
교보생명, 내부망에도 AI 내재화
KB손보, AI로 보상 효율 극대화

보험사의 'AI 전환'이 활발하다. 파일럿 단계를 지나 상용화·내재화로 접어들었다. '설계·상담·보상·내부 업무' 등 인공지능(AI) 적용이 확산되고 속도·일관성·설명가능성(XAI)을 수치로 관리하려는 기조가 뚜렷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AI 전환은 '가능성'에서 '성과 검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 등 제도 프레임이 통과된 뒤 실제 현장에서 처리 시간을 줄이고 직원·고객 경험을 바꾸는 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흐름이다.

고객을 만나는 첫 단계인 '가입 설계와 상담'이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한화생명은 'AI 번역'과 '가입설계 AI 에이전트(Agent)'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설계 단계에 AI를 접목해 고객 맞춤 설계안을 빠르게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평균 9분 이상 걸리던 설계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반복 설계 횟수를 줄여 재무설계사(FP)가 상담과 전략 수립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했다. 다국어 번역을 통해 외국인 FP·고객 접점의 언어장벽도 낮추는 구상을 내놨다. '규제 통과→현장 투입'의 정공법으로 본업 경쟁력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은 "AI 번역과 가입설계 AI 에이전트는 현장의 필요와 고객의 기대에서 출발한 혁신"이라며 "올 하반기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보험업 본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 경험 혁신을 동시에 이끌 것

다"고 밝혔다.

전사 내재화의 관점에서 교보생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보는 보장분석 AI 서포터, FP소장 AI 어시스턴트, 내부 통합 서비스인 AI 데스크(Desk) 등 생성형 AI 3종을 정식 오픈했다. 내부망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예외' 혁신금융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AI 데스크 파일럿 4개월 동안 일평균 1360여건의 질의가 오가면서 실사용 데이터가 축적됐다. 조직 내에서는 자연어 질의응답(Q&A) '교봇'과 인사·법무 등 부서 특화형 봇이 매뉴얼·사례 학습을 바탕으로 전문 질의에 응답하고 문서 초안 작성·코드 오류 수정 등 실무에 직결되는 생산성 효과가 입증됐다.

교보생명은 "고객 보장분석부터 팀 성과관리, GPT 서비스까지 AI를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처리와 현장 업무가 맞물리는 '보상(클레임) 단계'도 달라지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서비스를 개발해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 접수된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사고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매칭해 예상 과실비율을 자동 산정·안내하는 방식이다.

반복 검색 업무를 줄여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산정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겨냥했다. 연말까지 민원관리, 콜센터 상담지원, 계약 인수심사, 광고 심의 등으로 AI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 또한 제시했다.

KB손해보험은 "서비스 도입으로 반복적인 검색 업무가 줄어들어 사고 처리 과정이 한층 빨라지고 과실 판정이 명확해져 고객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김보현 "건설의 새로운 표준 제시할 것"

(대우건설 사장)

2025 대우건설 스마트건설포럼
"안전 최우선 원칙 하에 기술 도입"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스마트(Smart), 안전(Safe), 지속가능(Sustainable) 등을 핵심가치로 건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며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을 준수하고 모든 기술의 도입이 안전 최우선 원칙 하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2025 대우건설 스마트건설 포럼'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먼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기술로 미래를 건설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건설 혁신의 미래를 공유했다. 대우건설 임직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박명주 기술정책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KT,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2025 스마트건설 포럼' 전시장에 마련된 대우건설의 바로답AI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대우건설

엔비디아(NVIDIA), 큐픽스(Cupix) 등 산·학·연·관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BIM과 AI 융합 ▲데이터 기반 건설 관리 ▲드론·로봇릭스 활용 현장 혁신 ▲디지털 트윈 기반 시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또한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바로답AI, Q-박스(Box) 등 차세대

스마트건설 플랫폼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일 "이번 포럼은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업계 전반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해 스마트건설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정종표 DB손보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구본욱 KB손보 대표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주요 손보사 CEO 국감 줄소환... 벽지 車보험 차별 '쟁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참고인 진술로 출석 여부는 미정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선 '섬·벽지 자동차보험 차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삼성화재(이문화 대표)·DB손해보험(정종표 대표)·현대해상(이석현 대표)·메리츠화재(김중현 대표)·KB손해보험(구본욱 대표)·한화손해보험(나채범 대표) 등 6개 손보사 대표가 오는 15일 해수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해당 안건은 '참고인' 진술을 받는 형

태로 진행돼 최종 출석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단계로의견 청취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섬·벽지 자동차보험 차별 문제에 대해 '요율·인수 차별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지역 요율을 쓰지 않고 책임보험(의무보험) 인수 거절도 없다"고 말했다. 차별 문제가 보험료나 인수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다. 보험료·의무보험 인수에서의 차별은 없으므로 오히려 도서 지역의 긴급출동 같은 서비스 접근성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핵심 쟁점이란 설명이다.

현장의 문제는 '접근성'과 '비용'으로 요약된다. 도서 지역의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은 육지에서 선박을 타고 들어가

야 해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렵다. 제공 하더라도 인건비·운송비 등이 커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만약 특약으로 보편화하면 비용이 전체 가입자 보험료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

국감에서는 도서 지역 서비스 공백을 줄일 최소 보장 범위와 비용 부담 원칙, 해수부·지자체·업계 협력 모델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 포인트는 ▲참고인 최종 출석 여부 ▲도서 지역 긴급출동의 최소 보장 범위와 비용 부담 원칙 ▲해수부·지자체·업계의 협력 모델 제시 여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은 보험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국감 이슈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종합대책 회의

KB금융 전 계열사 CCO 참여

KB금융그룹은 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의 전사적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여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소비자보호 가치체계' 수립의 후속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KB금융 양종희 회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KB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와 실행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롭게 수립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고난도 상품 판매 정책 등의 보안을 위한 이

번 체계 수립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열사 실태평가 종합관리, 내부통제 현장점검 등 '지주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KPI 설계 시 소비자보호 핵심사항에 대한 배타적 합의권, 개선요구권 등 CCO의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KPI)' 설계 ▲상품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VOC 데이터의 심층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민원관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 그룹사 전체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추진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 사망보장에 연금기능도 하나로H중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은 1일 중신보험의 사망 보장 기능과 함께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로H중신보험'을 출시했다. 중신보험의 본질인 사망 보장은 강화하면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 기능을 탑재했다. 은퇴 직후와 국민연금 수령 전 생활자금이 필요할 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전환 후 초기 10년 동안은 연금액을 두 배로 지급한다. 또한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해 고객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치 못한 질병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12대 질병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질환에 걸리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돼 장기적인 부담을 줄였다. 또한 건강 등의 문제로 기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을 위해 '간편가입형'도 마련됐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7월 첫 선을 보인 '마이핏 건강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마이핏 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

택할 수 있는 모듈형 상품이다. 출시 당시부터 맞춤형 설계, 무사고 계약전환 할인, 납입지원 기능 등 새로운 구조로 호응을 얻어왔다.

삼성화재 마이핏 건강보험 개정 가족 결합 할인 신설

이번 개정에는 가족결합 할인이 신설됐다. 치매 및 장기요양 관련 보장을 추가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가족에 해당한다. 2인 이상 가족 결합시 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김주형 기자

LG, 인도법인 14일 현지증시 상장 “최대 1조8000억 자금유입 기대”

구주매출 통해 조 단위 환수
IPO 자금, 투자·M&A 본격화
확보 자금, 주주가치 제고도
인도 가전시장 잠재력 주목

LG전자 인도법인의 지분 15%에 대한 공모가 밴드(범위)가 최소 1조 7384억원에서 최대 1조 8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주당 공모가는 최소 1만7000원(1080루피)에서 최대 1만8000원(1140루피)이다. 처분 예정일자는 오는 13일이고, 최종 상장일은 이보다 하루 뒤인 14일이다.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도법인 상장 최종 승인을 받아 지분 15% 처분금액과 처분예정일자를 1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보수적으로 밴드 최하단 가격인 1조 7384억원을 기준으로 공시됐으나, 실제 처분금액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모가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LG전자 인도법인은 최대 12조원 이상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는 인도 증시에 상장돼 있는 피어 그룹(비교기업)의 시가총액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IPO는 신주 발행없이 LG전자 본사가 구주매출로 대각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하루 전인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인도법인



사진은 스리시티 공장 조감도.

/뉴스

주식 15%(1억 181만 5859주)의 처분을 결정한다 바 있다.

IPO로 일시에 유입되는 조단위 자금의 활용처 역시 주목받고 있다. 유력한 것은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성장 차원의 투자여력 확보다. LG전자가 선택과 집중 기조 아래 B2B(기업간거래) 등 질적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5년, 10년 후 경쟁우위 달성 관점에서 유망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가속화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 관점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확보자금의 일부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 가전시장은 14억 인구나 높은 경제성장률로 고속성장이 기대된다. 가전 보급률도 낮아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주요 가전 보급률은 냉장고 40%, 세탁기 20%, 에어컨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다.

LG전자는 지난 1997년 인도 시장 진출 이후 28년간 인도 전역에 걸쳐 철저한 현지 완결형 사업체제를 구축해 왔다. 현재 LG전자는 인도에 2개 생산기지와 51개 지역 사무소, 780여 개 브랜드숍을 운영 중이다. 남부 스리시티 지역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생산기지도 구축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스탠바이미2’ 뉴욕 브렉킹 특별 전시

예술·순환성 주제 이달말까지 진행
이동식 스크린 프리미엄 유통 진출

LG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

LG전자는 ‘LG 스탠바이미2’를 미국 뉴욕의 명품 백화점 ‘브렉킹’에 특별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욕 브렉킹 백화점은 프랑스 럭셔리 리테일 브랜드 브렉킹이 지난 3월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최근 뉴욕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까다로운 브랜드 큐레이션과 고급스러운 공간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특히 전자제품을 거의 다루지 않는 공간 특성상 이번 특별 전시에 LG전자가 참여한 것은 스탠바이미 2의 세련된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으로서 활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순환성’을 주제로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지속가능성과 순환 가능한 디자인을 화두로 패션·뷰티·디자인 분야 총 16개 브랜드와 예술가들이 협업해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업사이클링, 윤리적 생산, 재활용 소재 활용 등 환경적 가치를 예술과 창의적 디자인으로 풀어내며, 브렉킹이 추구하는 ‘예술과 라이프스타일의 조화’를 보여준다.



LG전자는 ‘LG 스탠바이미 2’를 미국 뉴욕의 명품 백화점 ‘브렉킹’에 특별 전시하며 라이프스타일 TV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 /LG전자

LG 스탠바이미 2는 전시 기간 동안 매장 곳곳에 설치돼, 참여 브랜드들의 스토리를 담은 약 20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브렉킹 백화점이 위치한 월 스트리트의 금융계 전문직들과 전세계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LG 스탠바이미 2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LG전자는 지난 7월 스탠바이미 2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고 주요 리테일 매장을 중심으로 전시를 확대하고 있다.

LG 스탠바이미 2는 버튼 하나로 화면부를 스탠드와 손쉽게 분리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식 스크린으로, 집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포스코, 차세대 합정용 강재 개발

차세대 합정용 기가급 강재 공동 개발
방호·경량화 성능확보 2~3년 내 완성

한화오션이 포스코와 손잡고 차세대 합정용 초고강도강 강재 개발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서울사무소에서 포스코와 차세대 합정에 적용할 기가급 특수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강재 및 이용기술, 용접 재료·기술 및 이를 적용한 선체 적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총 6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차세대 합정용 기가급 강재는 전투함정, 무인수상정 등 해상 무기체계의 구조 안전성, 방호성능 및 용접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특징점을 지닌 압연강판이다. 이 강재는 합정 중량을

크게 줄이면서 방탄 성능을 높여 안전성과 승조원 생존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은 향후 2~3년 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수상함은 수면 위로 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합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부 구조물의 경량화와 중요 구역에 대한 방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가급 강재는 일반 강재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홍 한화오션 특수선설계담당 상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화오션은 포스코와 함께 글로벌 첨단 합정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며 “양사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합정을 제공하는 ‘특수선 종합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HD현대로보틱스

AI 로봇 제어기 ‘Hi7’

안전·확장성 동시 강화

AI 모듈로 스마트 작업 환경 구현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로봇에 AI를 접목해 작업의 안전성과 확장성을 끌어올린다.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SafeSpace)2.0’을 탑재한 차세대 산업용 AI 로봇 제어기 ‘Hi7’을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Hi7 제어기는 고도화된 안전 시뮬레이션과 움직임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서가 수집한 상황 정보를 AI가 분석해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로봇의 동작을 멈추는 등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충돌 예방 기능에 라이다(LiDAR) 센서를 연동,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정밀한 안전 제어가 가능해졌다.

‘Hi7’은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협동로봇의 경우 공정별 전용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통신규격을 통해 작업범위의 확대 및 외부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해져, 산업용 로봇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국내 車업계, 내수·수출 ‘성장세’

현대차, 9월 판매 37만대 전년비 8% ↑
기아, SUV 호조에 글로벌 판매 확대
르노·KG모빌리티, 실적개선 흐름 이어
한국GM은 내수·수출 모두 판매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에도 국내 완성차업계가 지난 9월 글로벌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한국GM은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7만229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6만 6001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늘었고, 해외에서는 30만 6297대를 기록하며 6.4%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 판매는 10.8% 늘었다.

기아는 지난달 총 26만82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7.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는 4만9001대로 28.5% 급증했으며, 해외는 21만8782대로 3.7% 성장했다. 기아의 판매 성장엔 스포티지 등 레저용차(RV)가 주도했다. 스포티지는 글로벌 판매량 4만9588대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어 셀토스 2만7052대, 쏠렌토 2만393대 등으로 RV 인기가 높았다. 국내에서는 쏠렌토(8978대)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내수 4182대,



현대차 2026 그랜저.

수출 4528대로 총 8710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 대표 중형 SUV 그랜저 폴레오스가 3019대(72%) 판매되며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내수 4100대와 수출 6536대를 포함해 총 1만636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39.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지난달 독일에서 글로벌 론칭을 시작한 무쏘EV(654대)와 토레스 하이브리드(392대)는 물론 토레스 EVX(1303대) 등 친환경 경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며 증가세를 이었다.

한국GM은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지난달 내수 1231대, 수출 2만2492대 등 총 2만3723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1% 급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엔솔, 미국 공장 정상화 준비 총력

한미 비자 전담데스크 본격 가동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미 정부 간 비자 논의와 관련해 미국 현지 공장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양국 간 합의의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대미 투자

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의 인력 파견과 비자 문제를 전담 관리하는 소통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데스크는 오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과정에서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원관희 기자 wkh@

K-화학기업, 친환경·혁신 소재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K 2025

LG화학 65여종 주력 제품 전시
친환경 패키징 '유니커블' 소개

롯데케미칼 반도체·모빌리티 등
고부가 소재·혁신 기술 제시

SK케미칼 70여종 상용제품 출품
자동차 재활용 사례 최초 공개



독일 K2025에 참가한 LG화학의 전시부스 조감도. /LG화학



롯데케미칼 부스 조감도.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부스 조감도. /SK케미칼

국내 대표 화학기업들이 유럽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 'K 2025'에 참가해 친환경·혁신 소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K 2025'에 참가한다. 3년 주기로 열리는 K 전시회는 미국 NPE (National Plastics Exposition), 중국 차이나플라스(ChinaPlas)와 함께 세계 3대 화학산업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 전시는 '플라스틱의 힘! 그린(Green), 스마트(Smart), 책임(Responsible)'을 주제로 61개국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LG화학은 '화학이 이끄는 변화, 세

상을 움직이는 힘(CHEMISTRY DRIVEN. Impact Ready)'을 테마로 286㎡(약 87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65여 종의 주력 제품을 전시한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고광택·고내열 합성수지(ASA/ABS)를 적용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 중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리어램프가 전시된다. 초고중합도 폴리염화비닐(PVC)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전기차 배터리팩용 열폭주 지연 소재 등도 선보이며 시장 대응 역량을 강조한다. 리빙 존에서는 무광소재(ABS)를 활용한 가전제품, 패키징 존에서는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유니커블(UNIQUABLE™)'을 소개한다. 또 탄소나노튜브(CNT), 고성능 바인더, 에어로

젤 '넥슬라(Nexula™)' 등 차세대 소재를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

롯데케미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롯데케미칼의 소재 솔루션'을 주제로 고기능성 스페셜티 소재와 리사이클 소재 브랜드 'ECOSEED',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원료 등을 전시한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경량화 소재와 유럽연합(EU) 폐차 규제(ELV)에 부합하는 리사이클 소재를, 에코시드 존에서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리사이클 제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롯데케미칼은 스페셜티 존,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존, 그린 스페셜티

마티리얼즈 존을 운영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솔루션을 선보인다. 가전과 패키징을 비롯해 의료,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전방산업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고부가 소재와 혁신 기술을 제시해 글로벌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SK케미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존하는 솔루션'을 주제로 내걸고 70여 종의 상용화 제품을 출품한다. 리사이클 존에서는 '스카이펫(SKYPET) CR', '에코트리아 클라로(ECOTRIAC LARO)'를 비롯한 순환재활용 소재와 함께 화장품, 자동차, 식음료, 패션 완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현대차 아이오닉5에 탑재된 스카이펫 CR 헤드라이너, 오

스트리아 듀몬트와 공동 개발한 차량 매트 등 자동차 재활용 사례를 처음 공개한다. 바이오 존에서는 바이오매스 함유 코폴리에스터 '에코젠(ECOZEN)'과 100% 바이오 폴리올 '에코트리온(ECOTRION)'을 활용한 생활용품·소재 제품을 선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 화학기업들은 K 2025에서 ESG 경영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 소재를 앞세워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며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바이오 기반 소재 등 차별화된 솔루션이 글로벌 고객과의 협업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신형 캐딜락 ‘슈퍼크루즈’ 도입… 새로운 운전경험 제공”

한국GM 간담회

국내 정밀지도 구축에 100억 투자
핸즈프리 주행보조 기술 공개 예정

“출퇴근 왕복 100km 넘는 구간을 주행해도 피로감이 평소 절반수준이고 차량이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명옥 한국GM 커뮤니케이션 총괄 전무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된 'GM 슈퍼크루즈 기자간담회' 제너럴모터스(GM)의 최첨단 주행 기술 '슈퍼크루즈'를 한 달여간 시범 주행을 진행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북미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슈퍼크루즈가 도입되는 국가로, 올해 연말 새롭게 출시되는 캐딜락 신차에 탑재된다. 특히 핸즈프리(Hands-free) 주행 보조 기술이 국내에 처음 공



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최고마케팅책임자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 전무(왼쪽부터), 채명신 GM 한국사업장 디지털 비즈니스 총괄 상무, 하승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기술개발부 부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된 'GM 슈퍼크루즈 기자간담회'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GM

개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무는 “시범 주행을 통해 국내 도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과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짜릿함을 넘어서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빌리티 기술이 사람

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슈퍼크루즈는 GM 미래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로 라이다(LiDAR) 기반의 정밀 지도, 카메라, 레이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첨단 주행 기술이다. 국내에 도입

된 첫 핸드프리 기술이다. 또 자동 차선 변경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차별화 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GM은 국내 슈퍼크루즈 출시를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해 2만3000km 규모의 정밀지도를 구축하고 한국 도로환경에 맞게 최적화·현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 내 전용 맵 OTA 서버를 운영해 지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도로 정보를 반영한다. 고객은 전용 사용자 가이드와 튜토리얼을 통해 손쉽게 슈퍼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GM 고객 서비스 채널을 통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M은 올해 캐딜락을 시작으로 다른 브랜드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앞줄 왼쪽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국민통합위 중소기업 정책 발굴 맞손

중소 인식개선 캠페인 등 협력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기문 회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 개최 ▲정부 부처·유관기관에 정책 제안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립과 중소기업 혁신방안, 규제배심원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리 사회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6.3%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 생태계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신설과 온라인플랫폼 제정 등 중소기업에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호 기자

한성숙 장관 “중기부 산하 기관 정보화시스템 전수 조사”

취임 이후 첫 정책협의회 개최
국정자원 화재 후속 대응 등 논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업무 혁신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자리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이 신설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며 “공공기관에서도 더 큰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자원 화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계획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매년 110만개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중기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1시간

은 수요자의 110만 시간”이라며 “지원사업 정보·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신청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자”며 인공지능(AI) 기반의 효율적 심사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별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 협력 사항을 공유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는 중기부와 각 기관의 성과와 책임을 국민에게 검증받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복잡한 약정·혜택 덜어낸 미니멀 통신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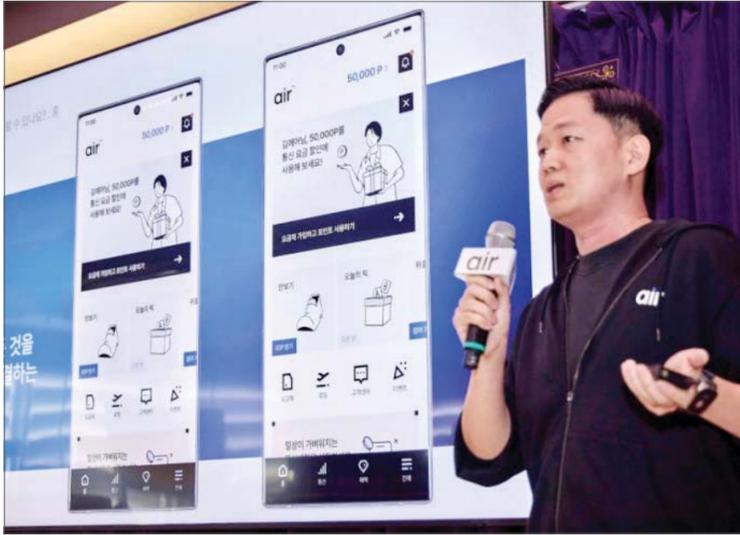
SKT 신규 서비스 '에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최적화 전용 앱으로 가입·해지 간소화 에어 포인트로 실용적 혜택 제공 무약정으로 위약금 부담도 없어

SK텔레콤이 2030세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정조준한 새로운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오는 13일 공식 선보인다. '통신 미니멀리즘'을 기치로 내건 에어는 복잡한 약정과 부가혜택을 덜어내는 대신,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표방한다.

SK텔레콤은 1일 ICT 복합문화공간 T팩토리 성수에서 SK텔레콤 신규 서비스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서비스 에어를 소개했다.

에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과 실용성이다. 기존 통신 서비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T멤버십, 유무선 결합 할인, 장기 고객 혜택 등을 과감히 없앴다. 대신 자급제 고객 선호도가 높은 5G 데이터 구간 6개로 요금제를 간결하게 구성했다. 요금은 월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까지이며,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무약정이라 위약금 부담도 없다.



이윤형 SK텔레콤 air기획팀장이 1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를 소개하고 있다. /SKT

기존 혜택을 덜어낸 자리는 '에어 포인트'라는 새로운 보상 체계로 채웠다. 사용자는 전용 앱에 탑재된 만보기, 밸런스 게임('오늘의 픽')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매월 최대 5000원까지 통신요금을 차감하는 데 쓰거나, 앱 내 '포인트샵'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편의점·백화점 상품권 등 1000여 종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를 '앱테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고객의 지속적인 앱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

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어는 서비스 경험 전반을 디지털에 최적화했다. 복잡했던 개통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분 30초면 가입 준비를 마칠 수 있으며,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을 우선 지원한다. 전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예약 가입'을 통해 다음날 오전에 자동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센터 역시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1:1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향후 AI 챗봇 도입도 계획 중이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화이트해커 검증을 거쳤으며, 외부 기관과 협업해 명의도용 등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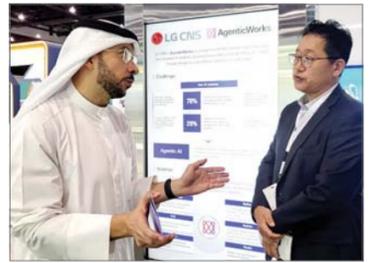
안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부가서비스는 고객 수요가 높은 실용적인 상품으로 구성했다.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에어가 알뜰폰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SK텔레콤 이윤형 에어기획팀장은 "알뜰폰과 경쟁을 생각해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자급제 단말을 쓰는 고객에게 통신 품질 외에 일상 속 혜택을 연결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자는 고민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알뜰폰도 매제공의무사업자인 만큼, 에어요금제를 알뜰폰 도매대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혁신적 시도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직원이 IDCE 2025에 마련한 부스에서 고객과 에이전트 AI 플랫폼 및 제조AX 기술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LG CNS

LG CNS 'IDCE 2025' 참가 제조특화 AX기술로 중동시장 공략 나서

LG CNS는 제조 현장 특화 AX(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앞세워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린 'IDCE 2025'에 참가해 S-OIL과 공동 부스를 마련하고 ▲플레이스택 최적화 시스템 ▲공정위험성평가 분석 AI 에이전트 ▲PSM AI 튜터 ▲AI 사고 신고 시스템을 소개했다.

대표 솔루션인 '플레이스택 최적화 시스템'은 AI 영상 분석과 CCTV를 활용해 연기의 색상과 불꽃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밸브를 자동 제어해 공정 안정성을 높인다. '공정위험성평가 분석 AI 에이전트'는 설비 도면과 사양을 자동 분석해 평가 시간을 60% 이상 줄이고 정확도를 높인다.

'PSM AI 튜터'는 직원 안전교육을 모의면접 방식으로 지원하며, 'AI 사고 신고 시스템'은 사진·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유형과 심각도를 분석해 보고서 작성과 기관 신고까지 자동 처리한다.

LG CNS와 S-OIL은 올해 2월 지능형 공장 구축 협약을 체결한 뒤 석유·정유 산업 현장에 AX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LG CNS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아랍코 등 중동 주요 기업과 협력 논의도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대기업·스타트업 등 203개사 AI 혁신기술 한눈에

'AI 페스타 2025' 인산인해 가온아이 등 중소기업도 한 자리에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술을 뽐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AI 페스타 2025'는 국내외 200여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거대언어모델(LLM)부터 생활 속 AI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경쟁하듯 기술력을 뽐낸 현장은, 정부가 내세운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는 AI 페스타가 '인공지능(AI) 주간 2025' 행사의 일환으로 열려 이날에만 1만 여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번 AI 페스타는 총 203개 기업이 466개 부스를 열고 AI 혁신의 현주소를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최종 정예팀 5팀이 모인 국가대표 AI 기업관 입구 풍경. /김서현 기자

전시했다. 전시는 ▲AI 코어존 ▲AI 융합존 ▲AI 트렌드존 ▲AI 거브존 등 네 가지 콘셉트로 나눠 전시됐다.

행사장은 자사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업들의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입구 가장 앞에 부스를 차린 KT는 B2B부터 B2C까지 망라한 AI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하고 유명한 아바타와 사진을 찍는 체험 공간을 꾸렸다.

정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최종 정예팀 5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별도 공간에서 부스를 꾸렸다. 이들 기업들은 각사에서 개발 중인 LLM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하고 관람객을 맞이했다.

행사장의 많은 부스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특히 카카오키가 큰 호응을 받았

다. 카카오키는 카카오톡에 적용한 챗GPT를 시연하고, 현재 개발 중인 언어모델 '카나나(Kanana)'를 소개했다. 알지 못하는 채팅을 요약해주는 기능 등 아직 카카오톡에 적용되지 않은 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AI 산업을 선도 중인 중소기업들도 한 자리에 모였다. 21개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관에 부스를 열고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번 KOSA 부스에 참가한 기업은 가온아이·구루미·나라원시스템·나무기술·데이터사이언스랩·레블업·뤼튼·바이브컴퍼니·베슬AI·비큐AI·엘리스그룹·와이즈넷·와이즈스톤·유라클·이노그리드·이스트소프트·지란지교소프트·캐디안·큐뮤티·클루커스·토토시스템 등 총 21개사다. 이들 기업은 AI B2C 서비스부터 인프라, 각종 솔루션, 플랫폼, 데이터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술 상품들을 선보였다. /김서현기자

메타빌드, SaaS 기반 'AI민원행정 서비스' CSAP 인증 획득

접수부터 응답까지 전 과정 자동화

메타빌드는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 '공공 AI전자민원 SaaS 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AI민원행정서비스 '시빌마인드(CivilMind)'가 한국인터넷진

흥원(KISA) 주관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9월 12일부터 2030년 9월 11일까지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시빌마인드는 대

규모 언어모델(LLM)과 RAG, 에이전트, RPA 기반으로 민원 접수부터 분석, 처리, 응답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클라우드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다. 민원내용 분석, 상담, 상담사 어시스턴트, 지식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

하며, 음성·텍스트·영상 입력을 아우르는 멀티모달 방식과 키오스크·모바일 앱·디지털 휴먼 UI/UX도 제공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원행정의 자동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빌드는 이번 CSAP 인증을 계기로 공공부문 AX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KT 국제전화 구독형 상품 001글로벌Free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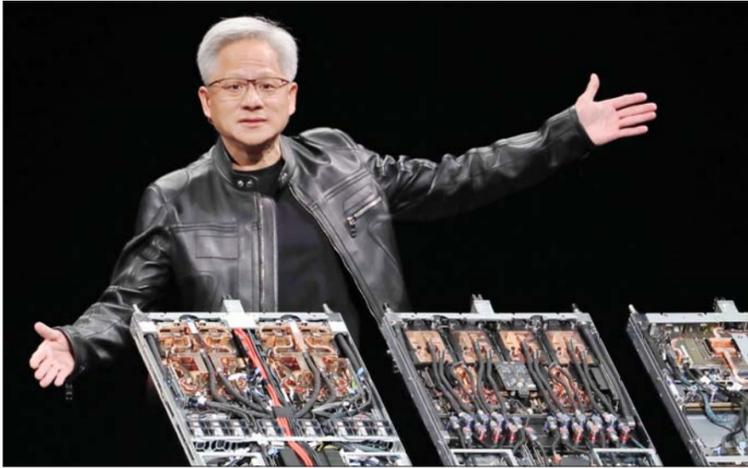
KT는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제전화를 월 120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1초당 3.3원의 할인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프리)'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001글로벌프리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동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KT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도 쓸 수 있다. 월정액은 7700원으로, 120분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무료 제공 시간을 초과하면 001 표준요금 대비 86% 저렴한 요금이 적용된다.

KT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와 유학·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고품질 국제전화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 출시 기념으로 10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는 첫 달 요금을 50% 할인한다. 가입은 KT닷컴, 마이케이티 앱, KT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시총 4.5조弗 첫 돌파... 엔비디아 'AI 거품론' 불식시켰다

주가 전날비 2.6% 상승 186.58弗 올해들어 주가 39%↑ 상승세 유지
코어워브-메타 계약 등 영향받아 시티은행, 목표주가 210弗로 상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월 19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컴퓨텍스 2025' 개막을 앞두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30일(현지 시각) 미 증시에서 시가총액 4조5000억달러(약 6300조원)를 넘겼다.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AI 시대를 대표하는 엔비디아가 월가의 '넵사벽' (넵기 어려운 사차원의 벽) 주인공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그동안 닷컴 시대를 이끌어 온 빅테크보다 엔비디아가 먼저 시총 4조달러(7월 9일)를 넘는데 이어 이날 4조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두고 세계 산업·경제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주가는 30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2.6% 상승한 186.58달러로 마감했다. 종가를 반영한 시가총액은 4조 5420억달러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른 뒤에도 올해에만 주가가 39% 오르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2023년 5월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한 뒤 2024년 2월 2조달러, 같은 해 6월 3조달러에 이어 지난 7월 4조달러에, 이날 4조5000억달러까지 돌파했다.

상승세의 직접적 촉매는 엔비디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미국 AI 데이

터센터 기업 코어워브(CoreWeave)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었다. 코어워브는 메타플랫폼(메타)과 최대 142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31년 말까지이며, 추가 옵션을 활용할 경우 203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코어워브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GB300' 서버랙을 메

타에 공급하게 된다.

코어워브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오픈 AI와 최대 65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용량 계약을 추가 체결해 총계약 규모를 224억달러까지 확대했다. 기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메타·오픈AI 등 AI 경쟁 최전선 기업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2단계 신호로 해석한다. 초기 모델 개발 단계에서 GPU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이제는 각사 데이터센터 확충과 모델 상용화 확대에 이어지면서 장기적 수요 기반이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2025~2029년 AI 설비투자(CapEx)가 2조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엔비디아의 파죽지세가 'AI 거품론'도 불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AI 기업들에 투자한 뒤 자신들

의 집을 사도록 하는 '순환 거래'를 유도해 시장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GPU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주가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는 매우 매력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 수와 컴퓨팅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했다.

한국투자자들의 엔비디아 관련 투자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보관금액은 159억1023만달러(약 21조9000억원)였다. 한달 전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엔비디아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GraniteShares 2.0x Long NVDA Daily ETF' 보유액이 같은 기간 5억 2542만달러에서 5억7724만달러로 14.9% 증가했다. 이 두 종목을 합치면 한국의 엔비디아 관련 투자금액은 164억8748만달러(약 22조7000억원)로 8월 말 대비 9억달러 이상 확대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서학개미, 비트마인 1억弗 어치 '집중매수' "투자자 보호, 사전예방적 감사 필요"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가상자산 중심 투자 쏠림
비트마인 주간 매수액 3위→1위
매수 2위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

가상자산 테마주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지난주(9월 20~26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집중 매수한 종목은 가상자산 채굴기업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이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 자료에 따르면, 9월 초까지는 오라클과 숏 ETF 등에 자금이 몰렸지만 지난주에는 가상자산 중심의 투자 쏠림이 뚜렷해졌다. 비트마인은 전주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이더리움도 전주 대비 순매수액이 크게 늘면서 흐름의 변화를 상징하는 종목이 됐다.

이 기간 비트마인 순매수액은 약 1억 263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9월 13~19일) 순매수액 8091만 달러 대비



ChatGPT로 생성한 '비트코인 보유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약 27%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비트마인은 본래 비트코인 채굴 사업 중심이었지만, 최근 이더리움을 집중 매입하면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 규모가 수백만 개에 달하고 암호화폐·현금 자산 총액도 100억 달러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재무 구조 변화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선 가상자산 ETF가 불허돼 투자자들이 대신 미국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주 순매수 2위는 Volatility Shares 2x Ether ETF(이더리움 레버리지 ETF)로 약 9736만 달러 순매수됐고, 3위에는 아이리스에너지(Iris Energy)가 약 9236만 달러로 이름을 올렸다. 아이리스에너지도 가상자산 채굴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AI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 사업 확장을 발표해 시장의 이목을 끈 기업 중 하나다.

아울러 기술대형주들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순매수 순위 상단에 올랐다. 엔비디아는 약 8475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8148만 달러의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다. 또한 QQQ ETF(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도 약 5492만 달러의 순매수로 기술주 전체에 대한 노출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 테마 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다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레버리지 ETF 구조의 복리 효과와 경로의 의존성,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규제 리스크 등이 투자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증권사 감사 워크숍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사조직에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사후 적발과 징계에 머물렀던 감사 기능을 선제적 내부통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및 감사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총괄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국 주요 간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감사들이 참석해 최근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감독·검사 운영 방식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감사조직도 사후 적발·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 달라"며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감사가 적발되면 엄정히 검사·제재하겠다"며 "반대로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 사례는 검사·제재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 권의 침해 사건이 일부 직원의 일탈뿐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조직이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 '와치독(감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참석자들도 "내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허정윤 기자

명인제약, 코스피 첫날 12만1900원 '파블'

공모가 5만8000원 대비 110% 급등

명인제약이 기업공개(IPO) 첫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파블(공모가 두 배)'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새롭게 개편된 공모주 제도 이후 첫 코스피 상장 종목이라는 상징성에도 제한된 유통 물량이 상승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공모가(5만8000원) 대비 110.1% 오

른 12만19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공모가 대비 106.55% 급등한 1만 98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한때 12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명인제약은 국내의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인 5만 8000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전체 기관 배정 물량 중 89% 이상이 의무보유확약으로 묶이면서 실질 유통 가능 물량이 약 11%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품절주' 성격이 초반 주

가 랠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일반 청약에서도 587대1 경쟁률과 17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명인제약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희망 범위(4만5000원~5만8000원) 최상단인 5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587.0대 1을 기록하며 증거금 약 17조3634억원을 모았다.

회사 측은 공모 자금을 중추신경계(CNS) 신약 '에베나마이드' 연구개발과 팔탄1공장·발안2공장 설비 확충에 투입한다. /허정윤 기자

'ACE ETF' 100개 종목 순자산 20조 돌파

한투운용, 9개월 새 58% 급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100개 종목의 합산 순자산액이 20조27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연초 13조원대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9개월 사이에 58% 가까이 증가했다.

순자산 급증장의 대표적 주역으로 ACE KRX금현물 ETF를 꼽았다.

이 상품은 지난 2021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금현물형 ETF로 올해 들어 순자산액이 1조5519억

원 증가해, ACE ETF 중 가장 큰 순자산액 증가 폭을 보였다. 전날 기준 순자산액은 2조1747억원이다.

미국 기술주 투자 상품도 순자산 성장에 크게 기여한 걸로 보인다.

관련 ACE ETF 라인업 16개 상품의 합산 순자산액은 5조4928억원으로 올해 들어 38.5%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ACE 미국나스닥100 ETF(7062억원)와 ACE 테슬라밸류체인 액티브 ETF(3924억원) 등의 순자산 증가 폭이 특히 컸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했다. /허정윤 기자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든 발전자산 친환경·디지털 전환”

3대 경영방침 ‘안전·상생·혁신’
현장중심 경영 기조 5만km 누벼
보령발전본부, 친환경으로 탈바꿈
에너지 대전환, 새로운 기회 변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보령을 비롯한 모든 발전 자산을 친환경·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보령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은 안전한 일터, 혁신적 성장, 공공적 가치 창출이라는 3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중부발전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사 안전관리단 운영과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로 중대재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갔으며, 직원 참여형 안전 포인트제도 도입으로 현장 안전문화도 정착시켰다. 지난 1년간 현장 중심 경영을 기조로 전국 사업소와 협력사를 누비며 이동거리만 5만km를 넘겼다. 발전소 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과 소통한 감성 경영의 성과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보령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에 약 1400억 원을 환원하고, 1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킨 점이 높이 평가된다.

혁신도전 분야에서도 속도를 냈다. 올해 인도네시아 수력 사업 계약, 미국 태양광 착공, 오만 태양광 주주 등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를 심사시켰고, 국내에서는 장주기 ESS, 가상발전소(VPP) 사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지난 9월 30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부발전

업 등 신사업 모델을 다각화했다. AI 기반 발전소 고장예측 시스템과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하이코미’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도 마련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총 설비용량 1만 777메가와트(MW)로 국내 전력공급의 8%를 담당하며 발전공기업 중 전력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해외사업에서도 발전공기업 최초로 4년 연속 3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입증했다.

이 사장이 강조한 미래 전략의 상징적 현장은 보령발전본부다. 보령은 198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 성장기, 전력 수요 폭증에 맞춰 건설된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단지다. 값싼 유연탄을 활용해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화를 떠받쳤고, 보령 3호기는 국내 최초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기술 국산

화의 기념비였다. 세계 최장 6500일 무고장 운전 기록은 한국 발전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상징이었다.

하지만 보령은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보령 1·2호기의 조기 폐쇄에 이어 2026년 5호기, 2028년 6호기가 복합발전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석탄 설비도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보령신복합 1호기가 들어서며, 수소 혼소 기반 가스복합 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여기에 육내 저탄장 전환, 국내 최대 10MW급 CCUS 설비 구축 등 친환경 프로젝트가 병행된다.

이 사장은 “보령은 지난 40년간 한국 산업발전의 중추였다”며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향후 2035년까지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구레·봉화 양수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완 전연도 확보한다. 또한 AI·데이터 융합 기술을 발전소 운영에 접목해 스마트 발전소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발전공기업 통합합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년 주기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며 “변화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회사별 인사제도, 급여체계, 기업문화가 달라 단기간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해관계자, 지자체,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해외유통 K-푸드 ‘진·가품 판별’ 가동

위조·모방품 판별 사이트 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글로벌 K-푸드 위조·모방품 관련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류 열풍 속 K-푸드 위조·모방 제품 증가에 따른 조치로, 이달 2일 제보 사이트 개설 시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1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중국·베트남·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을 진행해, 한글 문구나 태극기 표시 제품이 K-푸드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달에는 캠페인 대상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 방법은 지난번 캠페인과 동일하다. 해외 매장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 특정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제품명을 사용한 모방품 ▲ 한글 표기 등으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을 제

보하는 방식이다. 2일 개설 예정인 진·가품 판별 누리집에 해당 제품사진, 제품명, 유통매장, 발견일시, 모방 의심사 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해외 현지 소비자뿐 아니라 여행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증정한다.

aT의 전기전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한글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모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제조사 확인, K-푸드 로고 등 정품 구별 요령을 홍보해 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진짜 K-푸드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비자원 “일부 에어매트 유해물질 검출”

내구성·펌프 성능 차이 제품별 뚜렷
일부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에어매트 제품 간 내구성과 펌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캠핑용 에어매트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그린네이처 ‘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커 ‘NH C25 에어매트’ ▲노마드 ‘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 ‘NH C25 에어매트’ ▲루커스 ‘벨런스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 ‘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 퀸’ ▲쿠디 ‘PVC 에어매트 25’ 등이다.

성능 부문에서는 노마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펌프 성능에서도 노마드 제품은 공기 주입 시간이 1분 54초로 가장 짧았으며, 로티캠프 역시 2분 이내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커·루커스·스위스알파인클럽·쿠디 등 5개 제품은 공기 주입과 배출이 가능한 일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에어매트와 펌프를 시험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형 펌프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이 높았다.

다만 안전성 조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났다. 스위스알파인클럽과 쿠디 제품의 경우 피부와 직접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kg)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조사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며, 두 회사는 교환·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시사항 적합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7개 제품 가운데 스위스알파인클럽 제품만 관련 기준에 부합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펌프 관련 표시사항에서 제조연월 등 필수 항목이 누락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수산부

추석연휴 항만 안전강화

항만 운영 특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가 추석연휴 기간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 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및 보안 관리가 핵심이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운영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연료 공급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지난 27일부터 재해복구 센터를 가동해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김연세 기자

전력망 알박기 물량 4.1GW 회수
“실수요자에 단계적 배분 예정”

기후부, 연휴 포함 3주간 우선 배정
신규 사업 희망자에 잔여물량 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는 허수사업자 문제에 대응해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 물량 4.1GW(기가와트)를 실수로 발전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휴 용량을 신속히 시장에 재공급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전력망을 이용하려는 실수로 발전사업자들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지난 7월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MW(메가와트),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전국 단위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은 제

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집중된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이어 영남권 980MW, 강원권 679MW, 수도권 324MW, 충청권 78MW 순이다.

배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은 이미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어 10월 4주차부터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 그리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잔여물량을 공개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은 물량은 배전단 접속 대기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전력망 확충 공사보다 더 빠르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계약만 맺어두고 발전에 착수하지 않는 허수사업자가 계통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망 포화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급하다”며 “허수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확보된 여유 물량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딱 1초면 종자 특징 11가지 파악”

농진청, ‘표현체 영상분석’ 고도화
종자 62종에 기술 적용 정확도 97%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자·작물의 형태·색상·생육을 영상으로 수치화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종자 한 개의 11개 특성을 분석하는데 5분씩 걸리던 것이 단 1초로 단축된다. 4만 개 분석 기준으로 인력은 4명에서 1명, 기간은 40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특히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선별된 종자의 품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낸다.

농진청은 밀, 콩, 옥수수, 고추, 수박

등 상업용 종자 62종에 기술을 적용해 분석 정확도를 97%로 높였는데 이는 미국, 유럽에 뒤처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술은 종자분석에 더해 활용 범위가 넓다. 딸기 당도 선별, 사과 흠집 자동 선별, 팜이버섯 갓 수량 계산, 옥수수 낱알 수 확인, 수확 시기 예측 등 농장·가공 현장에 쓰인다. 또 제빵 공정 과정에서 불량 선별과 고사리 포자 발아 분석 등 식품·산림 분야로 확산 중이다.

농진청의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농업 고도화에 부응해, 표현체 영상분석이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해남군, LPGA 준비 분주...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총력”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16일부터 LPGA 정규투어 진행
주차장 확보 등 관광수요 대응
명현관 군수 “군 위상 드높일 것”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장 전경

/해남군

해남의 10월은 푸른 바다를 가르는 시원한 스윙으로 시작한다.

화원면 소재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대회로, 호남권에서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PGA대회 실황은 전 세계 170여개국, 약 5억 7000만 가구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회기간 동안 주최처에서는 5~6만여명의 관람객들의 현장 방문을 예상하는 등 스포츠 관광수요가 대거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해남에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링크스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환상적인 해안경관을 품은 시사이드(sea-side) 코스로 대한민국 10대 코스로 선정된 명문 골프장이다.

남도의 아름다운 가을 날씨 속에서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명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예약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군은 대회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 있다.

해남군은 군과 군의회, 지역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총 망라된 범군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준비와 교통·안전·의료 대책, 지역 홍보 전략 등 협력방안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 대회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응급의료부스와 자원봉사서비스도 마련한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세계에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이다.

이번 영암군 수소도시 선정은 지난 1기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호남권에서 2개 이상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이 최하다. 이로써 전남은 수소 산업 육성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김해시

“웹툰 페스티벌” 놀러오세요

김해시는 청년이 머무르고 즐기며 창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 오는 18일 ‘2025 김해 웹툰 페스티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김해 웹툰 페스티벌은 10월 18일 김해올하카페거리 일원에서 개최되며 웹툰 전시, 작가 토크쇼, 창작 체험, 청년 플라마켓, 지역상권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65일 운영 가능한 청년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영천시

‘영천애 와인&다인’ 참가 접수

영천시는 오는 10월 12일, 26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와이너리에서 미혼남녀를 위한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 ‘2025 영천애 와인&다인(wine&din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남 기회가 부족한 청년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럽게 즐거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영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접수하면 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의회-CJ푸드빌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 ‘맞손’

경남도의회는 9월 30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 고성군, 고성군의회, CJ푸드빌과 함께 고성 가리비를 중심으로 한 경남 수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적 소비망과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CJ푸드빌과의 협력해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및 가치 향상, 상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판로 확대뿐 아니라 가리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공품 개발로 이어져, 경남 수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지인달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국회 APEC 특위 의원 등이 APEC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우원식 국회의장·국회 APEC 특위 경주 방문

경북도, APEC 주요 행사장 현장점검

우 의장·특위, 정상회의장 등 확인
준비기획단, 경주박물관 활용 건의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경주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국회 APEC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의원 14명을 맞아 APEC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특위 소속 의원들은 APEC 개막을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라한호텔, 경제전시장, 국립경주박물관 등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에서는 APEC 준비기획단 임기모 부단장보의 준비 현황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고에 앞서 김기현 특위 위원장과 김석기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국립경주박물관 내 행사장을 주요 정상 양자회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고, 외교부는 상부에 보고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우 의장과 특위 일행은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를 확인하고, 이어 라한호텔 만찬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갈라만찬 문화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양정웅 예술감독이 만찬 문화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우주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국제우주대회 참가... 투자 유치 나서
유럽·호주 등 기업·기관 연이어 협약

경남도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우주대회(IAC 2025)’에서 30일(현지 시각) 글로벌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유럽, 호주, 국내 기업들과 연이어 협약을 맺으며 우주 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포함해 리투아니아 Space Hub LT, 호주 CTS(Corvus Technology Solutions), ANT61, 한국 우주로테크, 한컴인스페이스, 모멘텀스페이스 등 세계 우주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리투아니아 혁신청 소속 SpaceHubLT ▲호주 CTS ▲호주 ANT61 ▲국내 우주 기업 한컴인스페이스, 우주로테크, 모멘텀스페이스 등 6개 기업 및 기관과

투자·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호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 성과다. 유럽 우주 산업 허브 리투아니아와 우주 데이터·도킹 기술의 호주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과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기술 협력,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진출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경남은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비전을 목표로 아시아 최고의 우주항공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경남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협력과 투자 기회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바이오헬스 혁신거점’ 비전 공유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참가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2025’에 참가해 포항의 바이오헬스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지역 바이오산업 비전을 알렸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서 포항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포항의 독보적 바이오 연구 인프라 ▲지역 바이오기업의 혁신 역량 ▲포스텍 의대 설립 당위성을 소개해 참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포항바이오산업협회(회장 김성영)와 공동 참여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오헬스 혁신거점으로서의 포항의 비전을 함께 알렸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2025’ 포항시 홍보 부스 앞에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이제 철강을 넘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 의사와학자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 혁신을 이끌어 ‘바이오 보국 포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무안군, ‘지자체 일자리대상’ 국무총리 표창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 수상

전남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1위이며 일자리 공시제 부문 4년 연속 수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본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

체를 선정한다.

무안군은 2022·2023년 최우수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일자리 대상 수상은 산·학·관 등 일자리 협업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취한 쾌거”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더불어 우리 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정부 '배달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 우려

한국상품학회, 플랫폼 정책 포럼
김태완 교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독립식당 매출 감소"
플랫폼의 자발적 상생 등 유도해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플랫폼 생태계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선부른 규제가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상품학회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오미래연구소 주관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미국에서 진행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불러오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즉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에서 수수료가 낮은 독립 식당의 노출을 줄이고 수수료가 높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더 노출시킨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실증 연구에 따르면 수

료 상한제가 도입된 도시에서 상한제 적용 대상인 독립 식당의 주문과 매출은 감소하고, 적용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매출은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국내 사례를 통해 가격 상한제의 역설을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로 인한 혜택 감소에 매우 민감하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 주문 자체를 크게 줄일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상품학회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평균 3520원에 달하는 배달비를 비싸다고 인식(78.1%)하면서도, 무료배달(58.3%)과 할인쿠폰(32.4%) 혜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로 무료배달이 없어지거나 배달비가 오르는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경우, 응답자의 75%가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며 "또한 월평균 배달 이용 횟수가 현재 5.35회에서 2.11회로 6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상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출점을 규제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

며, 시행한다면 세종시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면서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희 동국대 교수는 "배달앱은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 달리, 배달원 인건비, 유류비 등 실질 비용이 발생하는 O2O 서비스"라며 "수익성을 무조건 낮추라는 규제는 플랫폼이 그 비용을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제적인 규제보다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골 얼라인먼트(Goal Alignment)'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완 교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규제는 풍선효과로 인해 어떤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대안으로 음식 가격에 배달료를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성희 교수 역시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가 더 많은 국민과 소비자가 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재차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획일적인 수수료 상한제보다는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 모델 개발 유도나 장기 계약 소상공인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간 전남 일대에서 진행된 퀴진케이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한 영세프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CJ제일제당

퀴진케이, 영세프 참여 '마스터 클래스' 성료

'남도의 바다' 주제 한식 심층 탐구를 선보였다. 둘째 날 영암 참발효연구소에서는 '전통식초 장인' 김명성 명인이 천연 식초의 원리와 활용법을 강연했다. 참가 셰프들은 직접 소스와 음료를 만들며 전통 발효의 가치를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한식과 전통 식재료를 명인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CJ제일제당은 '퀴진케이'를 통해 ▲한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 ▲한식 파인 다이닝 실습(K-스타주) ▲명인·셰프와 함께하는 연구 클래스 ▲요리대회 후원 등 차세대 셰프 발굴과 한식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원F&B, 참치뱃살 명작 등 추석선물 선배

총 100여종... 실속형 30% 확대 리유, 참기름 등을 묶은 3만 원대 '동원프리미엄 60호'가 대표적이다. 제주도와 협업해 해녀가 채취한 톳으로 만든 '양반 제주 톳김 세트'도 첫 출시됐다. 또한 동원푸드사의 저칼로리 소스 브랜드 '비비드키친'과 협업한 세트, 종이·재활용 소재로 만든 친환경 패키지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동원몰'은 10월 2일까지 할인 판매와 '오늘의 특가' 행사를 운영한다. 동원F&B는 1984년 처음 선보인 선물 세트로 40년 이상 명절 트렌드를 이끌어왔다. 2006년 누적 판매 1억 세트를 넘어섰고, 지난해까지 2억5000만 세트를 돌파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니즈에 맞춘 건강·실속·친환경 선물세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롯데지주, 박정화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선임

롯데지주가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정화 선임 위원장(사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

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임 기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설립된 롯데지주 컴플라



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컴플라이언스 정책 방향 심의, 계열사 활동 점검 및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롯데 관계자는 "박정화 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경영 강화와 윤리 의식 제고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百貨, 추석연휴 할인·팝업 행사 '풍성'

강남점서 9일까지 '아디다스' 팝업
7일 '비밀의 아이프리' 팝업스토어

신세계백화점이 가장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와 10월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와 국내 최초 팝업스토어 등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패션부터 뷰티, 캐리어 굿즈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행사를 마련해 연휴 기간 고객 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먼저 백화점 최초로 '아디다스 팝업스토어'를 신세계 강남점에서 오는 9일까지 선보인다. 'STADIUM TO STREET'을 주제로 아디오스 프로4 등 스포츠 제품과 삼바OG 등 패션 제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어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국내 최초로 인기 애니메이션 '비밀의 아이프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서 열린 아디다스 팝업스토어. /신세계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열고 단독 굿즈와 체험존을 운영한다. 패션 부문에서는 이달 19일까지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피어리, 메종키츠네 등 브랜드 고객을 대상으로 룩북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15% 할인권을 증정한다. 이와 함

께 이달 4일까지는 '신백 멤버스 페스타'를 열고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최대 70만 '신백리워드'를 제공한다. 뷰티 부문에서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옥도버 뷰티페어'를 연다. 행사 기간 중 앱에서 3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할인권 등을 제공하며, 딥디크, 프라다 뷰티 등 브랜드별 단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뷰티 편집샵 '시코르'는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K-뷰티페스타'를 열고, 7만원 이상 구매 시 50여종의 샘플로 구성된 '메가 샘플 키트'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가족과 자신을 위한 선물을 구매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 '핸드캐리형' 선물세트 판매 강화

'CJ 스파 타워 세트' 3000원 할인 타워 세트'를 이달 5일까지 3000원 할인된 1만6980원에 판매한다. 또한 '시그니처 사인머스켓 3입'은 35% 할인된 4만6410원에, 전용 잔이 포함된 '발베니 12년' 선물세트는 10만7800원에 선보인다. '휴럼 6년근 고려홍삼진액골드' 등 건강선물세트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정우진 마케팅 담당은 "명절 직전에도 고객분들이 부담 없이 직접 구매해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휴대성과 실용성을 갖춘 명절 선물세트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마트가 준비한 실속 선물세트를 통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제약바이오, K-의료미용 전선 확대... 특신·필러 '총동원'

K-뷰티 결합 글로벌 시장 도전
메디톡스, 온라인 유통망 다각화
동국제약, 신사업·신제품 확대
종근당바이오, 비동물성 특신 합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새로운 격전지로 공략하며 'K의료미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유통망 다각화 전략을 펼친다.

메디톡스는 전일 계열사 뉴메코를 통해 의약품 전문 유통기업 블루앰텍과 전략적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메디톡스 핵심 제품의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블루앰텍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들이 블루팜코리아에 대거 입점한다.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 '이노톡스'부터 150kDa의 유효 성분만 정제하고 내성 가능성을 낮춘 비동물성 보툴리눔 독신 제제 '코어톡스', 고순도 차세대 제품 '뉴리크'까지 모두 선보여진다.

올해 출시한 신제품 뉴라미스 하트, 뉴라미스 스킨 인헌서 등을 포함한 총 6종의 뉴라미스 제품군도 입점한다.

이와 함께 '뉴비주' 판매도 시작한다. 뉴비주는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40호 국산 신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공략하며 'K의료미용'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약으로 지방분해주사제로 중증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에 쓰인다. 세계 최초로 콜산을 주성분으로 처방했고 부종이나 멍과 같은 기존 제품 부작용은 줄인 것이 특징이다.

메디톡스는 온라인 판매행사 확대, 마케팅 기획, 고객별 서비스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제약도 헬스케어 부문을 핵심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메디컬 에스테틱 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9월부터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dkma)를 공식 출범시키며 의료미용 사업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비엔씨와 '비에녹스

주'에 대한 국내 독점 권역 계약을 맺었다. 비에녹스주는 감압건조제형을 갖춘 보툴리눔 독신이다. 독자 제품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 '벨라스트' 이후 13년 만에 고급 히알루론산 필러 '케이블린' 등을 내놓으며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이후 지난달 동국제약은 턱밑 지방 개선부터 피부 탄력 개선까지 가능한 '밀리핏 주사'를 출시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키토산과 셀룰라아시타카 정량 추출물을 복합한 성분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킨부스터 제품군도 선보인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 측은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최신 뷰티 유행과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바이오도 신제품을 앞세워 후발 주자로 경쟁에 합류, 후속 제품을 빠르게 마련하며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16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적응증은 중증증 또는 중증의 미간 주름이다.

특히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들과 비건 환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툴리눔 독신 제제는 제조 공정에서 비동물성 원료 및 비동물성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종근당바이오는 앞서 지난 7월에는 티엠버스주100단위를 출시했다. 종근당바이오는 티엠버스주에 출처가 투명한 균주를 활용하고 있고 국내 임상 진행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제품력을 확보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만 놓고 보면 이미 포화 상태인 것도 사실이고 절대적인 규모를 살펴봐도 신제품 출시,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다만 최근 들어 K뷰티와 융합한 형태의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한 유행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의료 수준, 합리적인 가격 등도 K의료미용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플로라 글로우 로즈' 스페셜 케어 라인 확장

마스크 3종, 피부 각질 등 관리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 마몽드에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마스크 3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슬리핑 마스크, 볼 마스크 등 3종으로 핵심 유효 성분들이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관리해 스킨 부스팅 효과를 갖췄다. 특히 PHA(폴리하이드록시산) 성분에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비건 유사 콜라겐 등이 추가됐다.

'플로라 글로우 로즈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2% PHA와 로즈 PDRN을 배합했다. 영양 성분이 흡수되며 하이드로겔 시트가 점점 투명해진다.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젤리 형태의 '플로라 글로우 로즈 슬리핑 마스크'는 밤사이 지속 방출되는 5% PHA가 피부에 꾸준히 작용한다.

'플로라 글로우 로즈 볼 마스크'는 고함량의 20% PHA를 처방하고 대형 면봉 형태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콜마비엔에이치, 동남아 수출 확대... "글로벌 1위 목표"

말레이시아·태국 파트너십 확대
코스웨이와 전략적 협약 체결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공급 계약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지속 거두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엔에이치는 수출 국가 다변화를 이뤄내며 해외 매출 개선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최근 말레이

시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확장했다.

지난 9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코스웨이 혁신 대잔치(COSWAY Reimagined Mega Event)'에서 콜마비엔에이치와 코스웨이는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자체 개발한 콜멜팅·팝핑 캔디 제형의 건강기능식품과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생산해 코스웨이에 공급한다. 코스웨이의 직접판매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적극 활용해 95억 달러 규모의 동남아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17~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서도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수주 실적을 올렸다.

해당 현장에서 콜마비엔에이치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기업과 콜멜팅파우더 기반 멀티비타민, 남성건강 제품 등 2종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베트남 코코앤비의 콜라겐과 태국 야미토의 팍핑유산균파우더는 전량 완

관을 기록해 총 2억원 규모의 재발주를 추가했다. 중국 스위스, 바이헬스, 싱가포르 바이엘, 베트남 파마시티 등과도 상담을 진행하며 협력 기회를 넓혔다.

이와 관련 운영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 역량을 갖추려면 긴 준비가 필요한데,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기 전 콜마비엔에이치가 선제적으로 품질·원료·제형·자동화 공정에서 세계적 기준을 확보한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앵커원에서 열린 '2025 인베스트먼트 데이'에서 조육제 유한양행 대표(왼쪽)와 뤼즈평 유안타증권 대표(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K-제약 생태계 확장"

'인베스트먼트 데이' 개최

유한양행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앵커원에서 유안타증권과 함께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투자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 인베스트먼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오픈이노베이션 성과와 향후 전략·비전을 공유하고 피투자사 5개사는 사업 현황과 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향후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 '이문온시아', 다중표적항체 기술 보유기업 '프로젠', 개량신약 개발 전문기업 '에드파마',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기업 '휴이노', 천연물 연구 기반 프리미엄 헬스 &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유한건강생활 등 각 기업 주요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사 사업 현황과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또 참여 기업과 투자업계 종사자 간 1:1 미팅도 이뤄져 구체적인 사업 전략에 대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청하 기자

정관장, 국가별 홍삼 선호도 차이 '뚜렷'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

정관장은 지난 7~8월 여름 휴가철 면세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홍삼 제품 선호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 비중에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뿌리삼 제품군이 매출 비중 3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 7월 출시된 '본삼대편'은 한국 방문 기념 선물로 인기를 끌며 뿌리삼 매출을 견인했다. 정관장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본삼 대용량 규격(300g·600g)'을 새롭게 선보였다.

미국인 관광객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뿌리삼' 등 주력 제품을 고른 비중으로 구매했으며, 대표 제품인 '홍삼정'이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관광객은 홍삼정에 이어 뿌리삼 구매 비중이 23%로 높아 전통 홍삼의 맛과 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인 관광객은 간편형 스틱 제품 '에브리타임'에 집중돼 매출 비중이 43%로 1위를 기록했다. 미용 관심이 높은 일본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홍삼담은 석류스틱 로얄'도 인기를 끌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올리브영, '헤어·바디케어' 행사 진행

오는 7일까지 최대 40% 할인

CJ올리브영이 10월 한 달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기능성 헤어·바디케어 상품을 제안하는 '한층 더 아름답게 울영에서 케어해바' 행사를 진행한다

올리브영은 세정을 위한 샴푸와 바디워시, 보습을 위한 바디로션뿐 아니라 탈모, 각질 등 기능성 성분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헤어 및 바디 관련 상품에 최대 40% 이상 할인이 적용된다.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헤어바디 특가'



'한층 더 아름답게 울영에서 케어해바'

/CJ올리브영

에서는 약 70종을 선정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헤어 및 바디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할인하는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이청하 기자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제 K바이오 혁신 :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등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강연	14:50~15:3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5:30~16:10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16:10~16:50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과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비상대응체계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속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NH농협은행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맞춤형 안전벨트 가드 2000개를 제작해 배포한다. 마티아스 바이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이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벤츠코리아



애경산업, 보훈가정 '무궁화 선물함' 전달
애경산업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며 서울 마포에 위치한 국제우호개발 비영리단체 굿피플 사옥에서 '무궁화 선물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물함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애경산업 박진우 상무(왼쪽)와 굿피플 이용기 회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홈앤쇼핑, '3기 소비자보호위원회' 발족
홈앤쇼핑이 소비자 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3기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발족했다. 1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정책 전문가 1명, 소비자 대표 5명,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왼쪽부터)홈앤쇼핑 소비자보호위원장 권창범 변호사, 홈앤쇼핑 이성한 경영지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한솔제지 에코바디스 플래티넘 등급

한솔제지가 에코바디스(Ecovadis)의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조사에서 상위 1%에 겨우 여되는 플래티넘 메달 등급(Platinum Medal Rating)을 3년 연속 획득했다. 한솔제지는 올해 평가에서 환경, 노동과 인권, 지속가능한 구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그룹, '현대차 정몽구배 양궁대회' 공식 후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후원 참여 역대 최대 규모 230명 선수 참가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전국양궁대회 2025' 트로피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 양궁의 지속 발전과 양궁 대중화를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양궁대회 후원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일 대한양궁협회 주최로 오는 3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를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 양궁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6년 창설 이래 국내 양궁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와 한국 양궁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

4회 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국가대표 및 상비군, 대한양궁협회 주관 대회 고득점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3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특히 내년 9월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 등을 앞두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의미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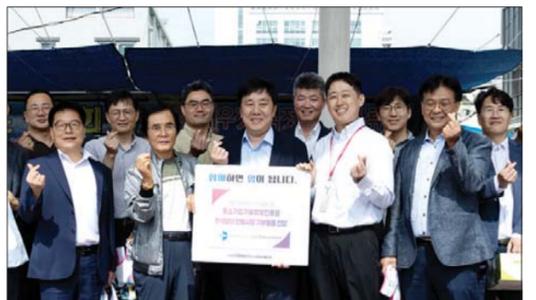
타이틀 후원사는 현대차이며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참여했다. 총상금은 국내 양궁대회 중 최고 수준인 5억9600만 원이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리커브 기준)이 포상되며, 상금의 25%를 입상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지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기부, 내수 활성화 팔 걷어...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 지원

한성숙 장관, 영천시장 차담회 소진공, 온기나눔 꾸러미 전달 기정원,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말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추석맞이 온기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세종전통시장에서 '지역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진행했다. (앞줄 왼쪽 6번째)김영신 기정원장이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공공기관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활성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추가 지원에 적극 나섰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장관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 떡,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석과 함께 진

행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기 회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도 추석맞이에 분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대전 태평 전통시장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소진공 봉사단은 멀티탭을 교체하고 자동 소화 패치를 부착하는 등 화재 발생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서트 마

개, 멀티탭, 자동 소화 패치를 상인회를 통해 배포했다. 이와 별도로 소진공은 지난달 말엔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송편, 유과 등 추석 음식 6종으로 구성된 꾸러미 1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성호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지난달 30일 세종시 조지원 세종전통시장에서 '지역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 김영신 원장을 비롯한 본부장·실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은 이날, 잡옷 세트, 견과류 등 생활필수품과 식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45억 조기 지급

어음 기준 평균 60여일 앞당겨



급일보다어음 기준 평균 60여 일 앞당겨 지급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ESG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여 개선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하여 협력사와 대리점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이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 U+, '아이드림챌린지' 4000명 참여

LG유플러스는 군인 자녀 대상의 교육역차 해소 프로그램 '아이드림챌린지' 누적 참여 인원이 4000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드림챌린지는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참여 아동은 LG유플러스의 '아이들나라' 등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통해 연령별 독서 활동을 지원받고,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부터는 군인 자녀를 넘어 소방관 자녀 4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인사

-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 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개방형직위) 이필우

부음

- ▲김서식씨 별세, 김학관(전 충북경찰청장)씨 부친상=1일,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3일. 043-210-5444
- ▲이운학씨 별세, 이영혜·영희·영현씨 부친상, 이성훈(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 부처장)씨, 김정기씨, 장태희씨 장인상 = 3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30분.
- ▲김재월님 별세, 박화진(아들)·박정희(딸) 모친상, 구성민 빙모상, 신정인 시모상 = 1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3일 오전 10시40분.

초식남자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지금은 일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었지만, 한때 일본의 신문과 TV 등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단어가 있다. 바로 '초식남자(草食男子)', 줄여서 '초식남'이다.

이 표현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와 주요 신문사인 아사히신문 등에서 집중해서 다루면서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확산하였다. 이 신조어는 매우 직관적으로 '초식동물과 같은 남성'을 의미한다. 초식동물의 이미지는 순하고 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초식남은 단순히 착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경쟁, 소비 등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단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

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거치며 1970년대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같이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공업과 제조업이었다. 이에 남성들은 장시간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 내 분업 구조가 고착되었다. 따라서 당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는 분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여 침체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구조가 변화했고 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달라지는 과정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초식남이다.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도 초식남의 등장에 한몫했다. 정보 통신 발달과 공장 자동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와 경제 구조가 달라졌는데 남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니 이 모순 속에서 초식남이 등장한 것이다.

초식남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소비를 줄이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란 단어가 과거만큼 사용되지 않는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세대 교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다시 활발해지며 위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애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일본의 '초식남'은 최근 우리 사회에도 던져진 질문이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거래소 감시, 누구의 몫인가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시장감시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넥스트레이드(ATS)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유일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구조가 정당함을 묻는 것이다.

시장감시본부는 지금까지 거래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내부 감시가 관행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장이 복수경쟁 체제로 들어섰고, 더 많은 거래소에 대한 수요도 언급되는 만큼 한국거래소 내부에서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도 한국거래

소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감시까지 받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분리론이 힘을 얻는 또 다른 배경은 속도다. 현행상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속도와 실효성에서도 한계를 보이며 분리론이 거론돼 왔다. 의심거래 포착에서 제재까지 평균 수개월, 재판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를 쫓건 기관 구조 위에 올려놓고 감시의 실효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감시-조사-제재'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이 해법으로 제시됐던 이유다.

논의는 감시본부를 넘어 청산결제본부(CCP)로도 이어진다. 국제 기준은 분리를 요구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 내부에 남아 있다. 기능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했지만, 실행 수준에서는 늘 '보류'에 가까웠다.

다만 방향성이 곧 현실은 아니다. 분리

와 독립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구로서 한국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유지해 온 데는 비용과 운영의 문제도 작동했다. 미국 역시 2007년 독립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을 설립한 이후에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서 내부에 시장감시 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 외부 독립 기구와 내부 감시가 혼재된 질충형 모델이 실제 운영 방식인 셈이다. 게다가 감시 조직을 외부로 떼어낸다면 예산, 인력, 권한의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시장감시본부에 충원되고 있다. 하지만 부서의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낮게 유지돼 왔다.

결국 답은 어렵지만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감시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감시하느냐'다. 감시의 독립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할지, 그 설계가 관건이다. 감시는 역할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일 때가 많다.

/godhe@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일 (음 8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협력의 수레바퀴가 노후를 포근하게 끈다. 48년생 사랑 없이는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야. 60년생 수동적인 자세는 이득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72년생 구직은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온다. 84년생 재물의 본질은 성실함.



37년생 뒤편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49년생 애정에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 마음이 즐겁다. 61년생 역동의 시간으로 기를 펴고 일할 수. 73년생 어제까지 막힘이 오늘 풀린다. 85년생 집수리하는 일의 추진이 다소 늦어진다.



38년생 흉담물은 잠시 두면 자절로 맑아진다. 50년생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슬퍼 말라. 62년생 나의 삶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74년생 책임과 판단에서. 86년생 부동산 주택매수 시 설계사분께 한번 문의를 해보면 도움이.



39년생 등산 가서 새로운 만남은 신중히. 5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계획을 정리. 63년생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75년생 이직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나 보답은 받는다. 87년생 마음을 바로잡아도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



40년생 세상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만 굳게 가져보라. 52년생 시기를 하더라도 미워하는 티를 내보이지 말라. 64년생 소인배일수록 복수의 칼을 가니 조심. 76년생 마음의 문을 열고 재산분배를. 88년생 사서 고생하니 오늘은 외출 자제.



41년생 세사에 공짜는 없으니 공짜 강연에는 안 가는 것이.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무산될 위기. 65년생 내게 관계없는 일에 구설 참견 마라. 77년생 하찮은 걱정은 접어라. 89년생 잘못해놓고 화를 내면 어찌하냐.



42년생 여마의 운이 있으니 멀리 있는 길도 무난. 54년생 초조한 마음이 병이 될 수 있으니 여제의 인연은 잊어라. 66년생 좋은 운을 실감하는 날이다. 78년생 서남쪽의 이사는 행운을. 90년생 첫 출근 마음에서 기쁜 일이 일어나는 하루.



43년생 운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모험에도 나가보라. 55년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하라. 67년생 붉은 컷 웨어를 걸는 오늘은 내가 주인공. 79년생 밤에 교통안전에 신중. 91년생 기일이 있으니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44년생 부부 다툼이 있고 누우치게 된다. 56년생 어머니 깊을수록 별이 더 반짝인다는 것을. 68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게으른 변명만 보인다. 80년생 가을이 지나고 추위가 닥쳐오니 겨울준비를 해라. 92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라.



45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없다. 57년생 껌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69년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미워 마라. 81년생 하다 보니 무에서 유를 창조. 93년생 게으름은 경제적 어려움이 싹트는 원인.



46년생 자식이 인연을 만나니 할 일을 다 한 듯. 58년생 돈을 잘 쓰면 못쓰던 나의 판단에서 나온다. 70년생 뜻은 원대하다. 82년생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94년생 시시비비를 지나치게 가리면 오던 복도 달아나게 된다.



47년생 옆 사람의 말에 과반반응 보이지 말라. 59년생 영업에서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71년생 내 말이 다 옮을 수는 없다. 83년생 남녀를 이어주는 것은 붉은 실이니 붉은 색상을 입고 오후 미팅에 나가라. 95년생 투자는 집 식구들과 상의.



김상회의四季

천제(天祭) 지내는 개천절

선조들에게 제사는 축일이다. 원시시대부터 기원 의식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만들어냈다. 오죽하면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겠는가? 건국 시조인 단군왕검도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같이 행사한 것으로 사가들은 얘기한다. 단군이 언급되는 삼국사기나 제왕운기 등에서 단군은 고조선의 초대 군주로 보며, 하늘신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나라를 열었고, 그 아들이 단군이 후계자로서 고조선을 열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늘신 환인(桓因)은 제석신의 또 다른 한자 이름으로 옥황상제로도 알려져 있다. 제석천왕의 아들이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려와 흥의 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할 때는 바야흐로 일년 12달 중 가장 상서로운 달이라는 시월이었다.

여름의 열기가 가시면서 대기는 높아지니 하늘문이 열리는 때라고 보았고 인간의 정성이 하늘에 장애 없이 맞닿을 수 있는 때라 시월 '상달'이란 별칭까지 붙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하늘을 우러러 경의를 표하며 나라의 나라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나라와 고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하늘에 감사제를 올리는 것이다. 가정은 식솔들의 건강과 무탈함, 재수대통을 바라며 시루떡을 찌고 정성껏 지은 곡주나 청정수를 올리며 고사를 지냈다. 현재 국가 공휴일인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지만 그 유래를 살펴보면 BC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한다. BC 2457년은 갑자년으로서 상원 갑자(上元 甲子)로 낱자를 따지는 역법적 추산이지만 주역적 관점에서 상원 갑자는 새롭게 기원이 시작한다는 의미다. 삼간삼이지의 조합인 육십 간의 출발은 갑자이다. 나라를 시작할 때 시월이 갑자년이었기 때문에 상원갑자라 이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6				4	2
7	6			1		9	3
	1						8
			7	3	9		
	3		5	6		9	
			1	8	4		
2							7
	7	1		4			8
8	4					7	3

5	4			3	6	9		2
	2			5			6	3
1			4					
4						1		
3	8						5	9
			2					7
						8		1
9	3			1				7
2		6	5	7				9

8	1	2	3	6	9	9	7	8
9	8	2	9	7	8	1	2	6
7	2	9	1	9	8	6	6	2
6	2	8	7	8	1	2	9	9
2	6	8	9	2	9	7	8	1
1	9	7	6	8	2	8	2	9
8	9	9	8	2	6	1	7	1
9	8	6	8	1	7	2	9	2
2	7	1	2	9	1	6	2	8
2	1	6	9	2	8	7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규제완화·금융지원 등 ‘심폐소생’... 민간임대 공급 늘린다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목표
건축규제 완화, 주택공급환경 개선
전세사기 막는 ‘AI 위험분석’ 제공
금융지원 강화, 대출제한 완화 등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등 인근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규제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제갈할 수 있는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소규모 오피스텔의 점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공급물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는 역할이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앞장선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말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 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도 유도한다.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민간임대주택 시장 신규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대출 제한(LTV 0%) 완화 등 세제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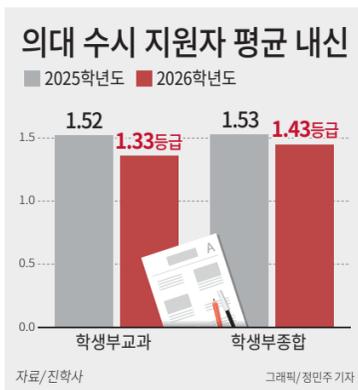
의대 지원자 내신 상승... 합격선도 오를 듯

의대 수시 지원자 평균 1.43등급
“커트라인,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도”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의대 지원자들의 내신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학생부교과·종합 전형 평균은 1.43등급으로, 지난해(1.56등급)보다 높아졌다. 수도권은 교과전형 지원자 평균이 1.12등급까지 높아졌고, 비수도권도 상승 폭이 커 합격선 상승이 예상된다.

1일 진학사가 수험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의대 학생부전형 지원자의 내신을 분석한 결과, 전형·지역 전반에서 작년보다 성적이 높아졌다.

전형별로는 교과전형이 평균 1.33등급으로 전년(1.52등급) 대비 0.19등급 상승했고, 종합전형도 1.45등급으로 전년



(1.53등급)보다 좋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교과전형 지원자 평균이 1.12등급으로 전년(1.19등급)보다 우수한 학생이 더 몰렸다. 비수도권은 상승 폭이 더 컸다. 교과전형 1.33등

급(전년 1.53등급), 종합전형 1.42등급(전년 1.56등급)으로 모두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지역인재를 제외한 종합(일반)에서는 지원자 평균이 1.38등급으로, 수도권(1.40등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의대 정원 축소와 경쟁 심화 속에서 무리한 상향 지원보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안정 지원’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도권 의대 경쟁률은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 의대 일반전형은 경쟁률이 상승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의대 지원자 내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만큼 합격선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수능최저 충족 난도가 높아 최종 커트라인은 당초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초등생 유괴 대응체계 강화

통학로 안전점검, 학생 안전교육 등
CU 편의점 ‘위기 대응 거점’ 지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최근 초등생 대상 유괴·유인미수 사건 이후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자치구와의 합동 관리, 통학로 안전거점 운영, 편의점 연계 보호체계 등 현장 대응을 묶어 즉시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교 안전관리·학생 안전교육 강화 ▲경찰·자치구와 연계한 학교 주변 치안 관리 ▲통학로 안전거점 지정·비상대응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력 확대 ▲학부모 대상 홍보·안심 메시지 발송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놴다.

특히 BGF리테일(CU)과 학생안전업 무협약을 체결해 서울 지역 CU 편의점 2900곳을 ‘위기 대응 거점’으로 지정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편의점 직원이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에 신속 인계하는 절

차를 마련하고, POS(결제 단말기) ‘아이 CU신고시스템’과 연계해 통학로 주변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한다. 학생·학부모 대상 안전 홍보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학원과외의 공조도 강화한다.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미설치 학원에는 학원연합회를 통해 사회공헌 차원의 신규 도입을 요청한다. 학원 내 유괴 예방 포스터·안내문 게시 등 홍보도 병행한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학로 안전 점검은 교육지원청 주도로 월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경찰·자치구에 즉시 개선을 요청한다. 학생대상 상향·역할·VR 안전체험 등 사례 기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병행한다. 녹색어머니회·50플러스재단 등 지역 조직과 연계한 등·하교 동행 캠페인도 확대한다.

/이현진 기자

정독도서관에 ‘노벨문학라운지’ 개관

서울교육청, 노벨문학작품 한공간에
작가와 소통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노벨문학상 120여 년의 궤적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노벨문학라운지’가 서울 정독도서관에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정독도서관(관장 엄동환)은 ‘노벨문학라운지’를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일 밝혔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한공간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처음이다.

‘노벨문학라운지’는 노벨문학상의 120여 년 역사성과 한국 최초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성취를 기념하고, 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에는 노벨문학상 역대 수상자(41개국 121명)의 관련 도서 1112권이 비치돼 있으며, ▲수상작과 관련 자료를 전시·열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한강 작가의 국내외 작품을 소개하는 K-문학 공간 ▲국가별·연도별 수상자 정보 검색 시스템과 필사 코너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정독도서관은 앞으로 ‘노벨문학라운지’에서 저자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김포~인천 도로 완공 ‘국지도 84호선’ 개통

김포시 대곶면, 양촌읍을 거쳐 강화도와 인천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가 최종 완료돼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38억원이 투입됐다. 도는 개통 이후 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지역 산업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8 | 해질 / 18:14

10월 2일 (木)
음력 : 8월 11일

수도권 날씨
19~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26, 동두천 16/26, 가평 16/26, 파주 16/26, 서울 19/26, 양평 16/26, 인천 20/25, 수원 19/25, 용인 19/25, 평택 17/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9월 미국 CB 소비자 신뢰지수 94.2·3.6P ↓ ... “고용 우려 고조”
▲러시아 법집행·정보기관 예산 역대 최대...경찰·첩보에 66조원 /사진 뉴스1

▲美의회조사국 “샷다운 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 강제 무급휴가”
▲日자민당 총재 선거, 의원표 1위 고이즈미...변수는 당원표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해역 지진... 사망자 31명으로 늘어
▲‘골프 친구’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 푸틴에 채찍 시간 문제”



배달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 우려
너



Life

제약바이오
보툴리눔 독신
총공세
L2



아바니 아오낭 클리프 크라비 리조트 인피니티 풀 전경.

태국 남부 크라비. 푸켓의 화려함이나 방콕의 번잡함 대신, 이곳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들어온 듯한 '자연의 아지트'다. 한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유명 여행지와 달리 이곳에서는 현지의 숨결과 원시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번 여행은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아바니 호텔 & 리조트가 운영하는 '아바니 아오낭 클리프 크라비 리조트(Avani Ao Nang Cliff Krabi Resort)'와 '아바니플러스 코란타 크라비 리조트(Avani+ Koh Lanta Krabi Resort)', 두 곳을 거점으로 진행됐다. 일정은 철저히 '힐링과 탐험'을 주제로 짜였다.

자극 대신 고요한 몰입... '자연의 아지트'서 온전한 여행을

Q 르포

태국 크라비 '아바니 리조트'

열대우림, 석회암 절벽 등 경관 뛰어나 자연경관 감상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카약, 트래킹 등 '탐험 프로그램' 운영 코란타 섬 리조트서 석양 보며 힐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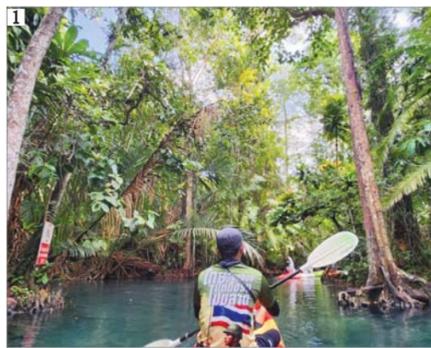
태국 남부 크라비에 위치한 아바니 아오낭 클리프 크라비 리조트는 변화가와 가까워 로컬 음식을 맛보거나 바닷가 거리를 산책하기 좋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6층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이다. 한눈에 펼쳐지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수영할 수 있고, 칵테일도 마실 수 있다. 특히 눈 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석회암 절벽 뷰는 탄성을 자아낸다.

인피니티풀 옆에 자리한 다이닝 레스토랑 '더 클리프'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태국 크라비는 고대 열대우림, 거대한 석회암 절벽, 에메랄드빛 바다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 덕분에 지난 7월 개봉한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주요 촬영지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아바니 호텔 & 리조트는 영화 속 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테이 인 쥬라기 파라다이스(Stay in Jurassic Paradise)'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약을 타고 클롱루트에서 클롱남사이까지 이어진 물길을 탐험하는 카약킹이



있다. 에메랄드빛 물 위로 솟아있는 고목들과 물 아래 훤히 보이는 수초들은 현실감마저 잊게 했다. 영화 '쥬라기 월드' 풋말이 세어진 지점에서는 잠시 카약에서 내려와 구멍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바탕 물놀이를 마친 뒤 다시 카약을 타고 출발 포인트로 돌아와 코코넛쥬스를 들이키면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또 다른 탐험 액티비티로는 정글 트레킹이 있다. 열대우림을 지나다보면 나무 뒤 원숭이와 뱀, 바위같은 개미 집을 발견할 수 있으며 동굴에서는 박쥐 무리라도 마주칠 수 있다. 정글



- 1 아바니 호텔 & 리조트는 영화 속 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테이 인 쥬라기 파라다이스(Stay in Jurassic Paradise)' 패키지를 운영한다. 카약을 타고 물길을 따라 가고 있다.
- 2 아바니플러스 코란타의 '더 클리프' 레스토랑.
- 3 아바니플러스 코란타 아바니 풀빌라 리빙룸. /해시컴퍼니

이 가진 원초적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쥬라기 시대를 콘셉트로 한 맹그로브 숲 카약 체험과 정글 하이킹은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선사한다. 스마트폰과 SNS에서 잠시 벗어나 원시 자연 속에서 함께 노를 젓고 걸으면 세대 간 교감과 몰입형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새벽 맹그로브 숲에서 현지 전통 보트 '곤돌라'를 타고 해돋이를 맞이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우기에는 해가 떠도 일출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고요한 물가 위 새 소리와 물 위의 풍경에 집중하다보면 그마저도 운치를 자아낸

다. 곤돌라에서 먹는 소박한 로컬식 아침과 커피도 진한 여운을 남긴다.

아바니 아오낭 클리프 크라비 리조트가 변화가와 가까워 지역 특색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었다면, 아바니플러스 코란타는 '은둔형 럭셔리'에 가까웠다.

크라비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70km, 페리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코란타 섬은 울창한 열대우림과 청정한 바다가 환상적인 절경을 자랑한다. 이 섬에 위치한 아바니플러스 코란타는 91개의 룸과 스위트, 프라이빗 풀빌라를 갖췄다. 아바니 바다뷰 풀빌라에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함께 모던 태국 스타일의 리빙 공간에서 장엄한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오전시간 정글에서 액티비티를 즐긴 뒤 숙소로 돌아와 고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내려놓기에 완벽하다. 리조트 내에는 환상적인 전망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미식 여정이 가능한 올-데이 레스토랑인 '더 클리프'가 있다. 태국의 품미 가득한 요리부터 세계 유명 요리를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다.

크라비는 단순히 '볼거리'의 여행지가 아니라 '느끼는' 여행지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아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다는 점은 오히려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방콕이나 푸켓을 경험한 여행객들이 '다음 단계' 여행지로 눈을 돌릴 때, 과잉 자극 없는 크라비는 좋은 여행지가 될 것이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화려한 쇼핑이나 밤문화대신 웰니스와 모험이 가득한 곳에서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크라비(태국)=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시급 대우” 손흥민, LAFC서 ‘선수단 구성’ 권한까지
▲“끝판대장” 삼성 오승환 눈시울 붉히며 은퇴... “다시 태어나도 야구 할 것” /사진 뉴시스

▲‘테니스 세계 1위’ 알카라스, 저팬 오픈 단식 우승
▲삼성, 1라운드 지명 투수 이호범과 2억5000만 원에 사인

▲파라과이와 비긴 한국, U-20 월드컵 1무1패... 일본은 2연승
▲김효주·유해란·이민지 등 LPGA BMW 챔피언십 출격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